

# 북한개발소식

2023 JUL

07

통권 213호

## 이달의 주제

북한 출신 성도의 신앙여정을 통해 보는 북한선교

## 탈북민 수기

7화 - 그곳에서 만난 천사들

## 북한뉴스

북한 정찰위성 발사엔진 고장으로 실패 외

## 서평

북한 왜 이럴까 - 도표로 정리한 북한 이슈



한국 오픈도어 북한선교연구소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 CONTENTS 2023 JUL



이달의 주제 :

## 북한 출신 성도의 신앙여정을 통해 보는 북한선교

- 권두칼럼 **01** 북한 출신 성도의 신앙여정과 북한선교
- 칼럼\_1 **08** 전명희 \_ 탈북민의 신앙여정과 북한선교
- 칼럼\_2 **14** 주성종 \_ 북녘 선교 연구 방법론
- 칼럼\_3 **20** 오바나바 \_ 탈북민의 신앙여정과 북한선교
- 탈북민 수기 **26** 김서윤 \_ 7화 - 그곳에서 만난 천사들
- 북한뉴스 **35** 북한 정찰위성 발사 엔진 고장으로 실패 외
- 서평 **38** 북한 왜 이럴까 - 도표로 정리한 북한 이슈
- 북한 기도 제목 **40** 북한 선교 현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외

01



08



14



26



# 북한 출신 성도의 신앙여정과 북한선교

오픈도어선교회 북한선교연구소

선교는 근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해외 선교지와 같이 남한에서의 전도와는 분명 차이가 있다. 전혀 다른 체제 속에서 문화와 가치관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그 체제가 반기독교적이고 유사종교적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고 극복하는데 있어 극도로 제한된 북한 사람과의 접촉점은 큰 장애가 된다.

통일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초를 기준으로 국내 입국 탈북민의 숫자가 3만 4천여명에 미치고 있다. 그 중 약 40% 이상이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한다. 오랜 기간 탈북자들을 위해 헌신해온 선교사님, 해외 현지 사역자와 성도들, 그리고 함께한 한국 교회의 수고의 결실이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들 중 진정으로 회심을 경험하고 신앙의 여정을 지속하고 있는 수는 크게 못미친다고 한다. 북한 출신 성도들은 북한의 가치관과 문화의 경험을 가진 만큼, 이들의 신앙여정은 북한 선교에 있어서 복음 제시와 수용 과정에서 마주하게

될 문제점이나 장애물, 그리고 이를 극복하는 방안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사례가 될 것이다. 북한 출신 성도들의 회심과 신앙에 대한 연구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 선교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교훈을 살펴보자.

## 북한 출신 성도의 회심과 신앙생활

북한 출신 성도들이 처음 복음을 접하고 회심한 과정을 살펴보면, 보통은 복음에 대한 교리적인 이해나 결심 보다는 전하는 사람과의 관계나 필요에 의해 복음을 접하였다. 그리고 처음에는 복음을 받아드리지 못했지만, 영적인 체험이나 깨달음 등을 통해 회심에 이르렀다.

주성종(2022)은 탈북민 목회자 31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회심과 헌신에 대해 연구하였다.<sup>1</sup> 해당 연구에서 응답자의 과반수에 가까운 15명은 말씀을

<sup>1</sup> 주성종 (2022), *북녘 선교 연구 방법론*, 서울: (사)기독교문서선교회, 92-99.





통한 깨달음을 회심의 주요 요인으로 언급했으며, 영적 체험(7명), 기도와 응답(5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여러 외부적, 내면적 어려움을 신앙으로 극복하는 것이 회심과 헌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한정우(2016)는 탈북민이 기독교 신앙을 접하고 받아드리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에 대해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sup>2</sup> 연구에 참여한 다수의 탈북민들은 기독교 교리에 대한 이해보다는 막막한 상황에서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주는 교회의 모습에서 감동을 얻고 신앙을 접했다고 응답했다. 그들의 기존 가치관으로 볼 때 기독교 신앙은 어색하고 비이성적으로 보였지만, 그 메시지를 전해주는 사람이 좋아 신앙을 받아드리는 경우가 많았다.

전명희(2019)는 남한에 온지 5년 이상 되었고, 교회에 3년 이상 출석한 탈북 성도 13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통해 그들의 신앙여정을 추적했다.<sup>3</sup> 연구 결과에 따르면 탈북민들은 처음 전도를 받을 때에는 믿음보다는 의심이나 북한 체제와의 유사성에 따른 거부감 등을 가졌다. 그렇지만 의심과 비자발적 훈련의 과정, 혹은 의아하고 허무맹랑한 것에 대한 거부감이 지나가고 난 어느 순간이 되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할 수 없이 맞닥뜨리는 경험을 함으로서 회심에 이르렀다. 이 경험을 해당 연구에서는 “하나님과의 존재론적 만남”이라고 명명했는데, 이는 “스스로 믿기로 결정했다기보다는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심으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하나님과의 만남이었다는 점이 강조된 현상”을 표현한 것이다.<sup>4</sup>

## 신앙 생활에서 마주하는 난관과 장애물

회심을 거치더라도 북한 출신 성도들의 신앙 성장에는 여러 장애물을 만난다. 회심 당시에는 모든 일을 영적인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여러가지 문제에 봉착한다. 어렵게 남한에 도착했지만 여전히 고단한 삶의 연속이고 신앙도 삶도 침체에 빠지곤 한다. 이 외에도 북한에서의 극심한 권위주의 체제와 이를 강요하는 사회적 폭력에 대한 경험으로 인해,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이미지를

2 한정우 (2016), “북한이탈주민의 기독교와의 만남에 관한 질적 연구”, 성결대학교다문화평화연구소, 다문화와 평화 10(2), 134-154.

3 전명희 외 (2019), “탈북 기독교인들의 신앙 여정에 관한 연구: 근거이론 접근방법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30(4), 173-207.

4 앞의 글, 190.



가지게 되거나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맺기를 어려워하는 경향도 관찰된다.

전명희(2019)의 연구에서는 탈북 1세대의 경우 열정적으로 신앙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 이면에 하나님에 대한 권위적인 이미지가 자리잡은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다. 하나님에 대해 잘 잘못을 따지고 벌을 주는 징벌적 하나님의 이미지가 강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sup>5</sup>

김경숙(2018)은 탈북민의 트라우마가 신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체류 기간이 5년 이상이며 북한에서 30년 이상 거주하였고 5년 이상 결혼 경험이 있는 12명 여성을 대상으로 심층 연구를 진행하였다.<sup>6</sup> 연구에 참여한 탈북 여성들은 사선을 넘는 탈북 여정에서 극적인 하나님을 체험하였기 때문에 살아 계신 하나님의 실재를 인정하였다. 그렇지만 그녀들이 경험하고 느끼는 하나님 표상은 학대적인 남자의 표상 경험, 그리고 폭력적인 김일성 부자의 공포 경험처럼 두려운 표상 경험이었다. 그들은 북한에서 충성하지 않으면 처벌을 가하는 폭력적인 권위, 말조심 하지 않으면 언제고 수용소로 잡혀갈 수 있기에 자기 표현을 억제하고 속마음을 감춰야만 하는 시스템, 그리고 가정에서의 폭력을 경험했다. 이 연구는 이러한 경험이 그녀들의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에 대해 왜곡된 표상을 가지는데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다. 즉 나를 깊은 곳까지 아신다는 데서 느끼는 하나님에 대한 섬뜩함, 하나님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 신앙 생활



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강박,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죽어가고 수백만이 굶어죽기도 했고 독재자가 판을 치는데도 북한을 내버려두시는 하나님에 대한 의문과 무력하신 하나님, 부재하시는 하나님 등이다.

이렇게 북한 출신 성도들은 회심을 경험하고 영적인 변화를 체험하지만, 곧 이어 많은 물리적, 정신적 장애물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를 극복하는 것은 신앙 성장의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이 여정을 전명희(2021)는 융 학파의 연금술의 심리학에 비유하여 설명했다.<sup>7</sup> 즉 신앙을 가지기 전 혼돈의 ‘흑화(Nigredo)’, 복음을 접하고 점진적으로 회심으로 나아가는 과정인 ‘연금술적 청색’(Alchemic blue), 영적 체험을 통해 고양감을 느끼고 믿음을 시작하는 ‘백색’(Albedo), 여러 현실적 어려움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는 하강과 죽음의 고통의 시기인 ‘흑화’(Nigredo), 그리고 어두움을 극복하고 초보적인 신앙을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배우는 ‘적화’(Rubedo)의 단계로 표현하였다.

5 앞의 글, 202-204

6 김경숙 (2018), “탈북여성의 트라우마가 하나님 표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9(1), 35-66.

7 전명희, 박정아 (2021), “기독교 탈북민의 신앙 경험 속에서 자기 찾기 과정 : 연금술의 심리학적 접근의 사례분석 연구”,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32(1), 93-122.



해당 연구는 특별히 북한 출신 성도들이 회심 이후 신앙 여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하강과 고통의 ‘흑화’ 단계를 극복할 때 진정한 신앙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분석하고, 흑화 단계에서 드러나는 하나님과의 거리감, 흑백논리와 율법주의, 자기 내면세계에 대한 몰이해 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상담가와 공동체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북한의 반기독교 사조와 탈북민

앞서 연구 자료들을 살펴보면 북한 출신 성도들의 회심과 신앙 성장에 있어 북한에서의 억압과 주체사상의 영향이 주요 장애물로 작용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먼저 당국으로부터 받은 반기독교 교육의 영향이 존재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종교 경험에 관한 연구<sup>8</sup>에 따르면 상당수의 탈북민들이 북한의 반기독교 교육의 영향으로 기독교에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거리감을 느끼거나 부정적 감정 또는 반감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재환 외(2022)의 연구에서는 연구에 참여했던 북한 출신 성도들 스스로가 회심의 장애요인으로 유물론적 사고와 주체사상의 영향에 따른 정신적인 부분을 가장 많이 언급했다.<sup>9</sup> 복음과 성경의 내용이 이들의 기존 가치관으로는 허무맹랑하게 느껴지기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에서 들어왔던 사상 교육 내용과 유사한 부분도 있어 의식과 거부감이 작용한다는 것이다. 북한 출신 성도

들은 자신을 도와주고 사랑으로 섬겨주는 사역자나 교우들이 전해준 만큼 복음과 성경을 접하고 공부에 참여했지만, 이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이러한 장애요인의 극복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 말씀을 깨닫거나, 기도 응답이나 영적 체험, 또는 막다른 상황에서의 기적 등을 경험하는 등 기존의 가치관을 넘어설 수 있는 외부로부터의 영적인 임팩트가 필요했다고 북한 출신 성도들의 회심에 대한 여러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주체사상의 내용 뿐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한 북한 사회 통제 시스템도 장애 요소이다. 북한은 지도자를 비롯한 사회 전반의 권위에 대한 충성이 강요되고, 당국의 눈 밖에 나는 경우 심대한 폭력적 처벌이 이루어지는 통제사회이다. 이러한 억압에 익숙하다보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도 두려움과 공포심을 느끼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북한에서 그랬던 것처럼 겉으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동기가 신앙심이 아닌 과거 처벌을 피하기 위해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였었던 북한에서의 행태의 반복인 경우도 있었다. 또 반대로 교회에서는 북한에서 수요강연회, 금요학습, 일요생활총화 등 교회의 예배 모임 구조와 유사한 통제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교회 활동에서 북한에서 자신들이 싫어하고 불편해했던, 또 배신감을 느꼈던 부분들이 회상되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 자신들을 괴롭혔던 간부들의 권위적인 모습이 교회 목회자 및 중직자의 모습과 유사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익히 알려져 있다시피 주체사상은 기독교 사상에 서 하나님 대신 수령을 대체한 듯이 기독교 교리

8 이순형 외 (2015), **북한이탈주민의 종교경험**,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9 임재환 외 (2022), “근거이론을 통한 북한이탈주민의 회심에 관한 연구”, **복음과 선교** 57, 171-173.



와 매우 흡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유사점은 북한 주민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북한의 사상과 유사하다는 사실이 새로운 교리를 받아드리는데 어려움이 되기도 한다. 주체사상과 기독교는 한편으로는 유사성이 높지만, 근본적으로는 정반대되는 사상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 주체사상은 유물론적, 진화론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다. 그렇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신적 존재에 대해 북한 사람들은 그러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부정적으로 반응한다. 언뜻 보기에는 수령을 신적 존재로 떠받들드는 체제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신적 존재를 잘 개념화 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그렇지만 북한 사람들에게 수령은 영적 존재가 아니라 실제 생존했던 사람이고, 내세의 구원자가 아닌 현세에서 인민 대중을 영도하는 위대한 지도자로서 부각되는 등 차이가 있다. 수령의 자리를 하나님으로 대체하면 북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쉽게 이해하고 믿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일반화하여 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주체사상은 개인과 조직, 민족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매우 인본주의적인 사상이기에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지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기독교적 가르침과 상충된다.

유물론과 주체사상의 영향에서 파생되는 문제 중 하나는 바로 물질주의이다. 북한 사람들의 경험한 체제와 사상은 유물론이 그 근간에 위치한다. 비록 북한의 지도자나 체제에 대한 회의감을 가지게 될 때라도, 북한 사람들은 유물론의 영향으로 영적, 또는 종교적인 개념에 대한 거부감과 함께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가지기 쉽다. 실제로 많은 북



〈북한 평양의 주체사상탑〉

한 사람들이 고난의 행군이라는 극심한 빈곤 속에서 자신들의 생계를 내팽겨쳐버린 북한 체제에 대한 의구심과 회의감을 가지는 가운데, 생존의 위협에서 얻은 교훈을 따라 돈과 물질을 온 힘을 다해 추구하는 삶으로 바뀌는 경우가 관찰되고 있다. 이러한 물질주의의 함정은 신앙성장에 심대한 장애물로 작용한다. 권오성 외(2023)의 탈북민의 회심과정에 대한 사례연구에 따르면, 북한 출신 성도들은 한국에서의 신앙생활이 중국이나 제3국에서보다 더욱 힘들다는 것을 느끼는데, 이는 하나님의 자리에 자꾸 돈이 자리잡는 등 돈과 관련된 어려움과 유혹이 많기 때문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속적인 회심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해석했다.<sup>10</sup> 이와 관련하여 북한의 유물론적 사상의 영향 외에도 교회 안에 존재하는 물질적 축복에 대한

10 권오성 외(2023), “사례연구를 통한 탈북민의 회심 과정에 관한 연구”, 복음과 선교 61, 36.



잘못된 이해나 기복신앙적 요소도 북한 출신 성도들의 바른 신앙 성장에 장애물이 되기도 한다.

## 북한 선교에의 함의

북한 성도들의 회심과 신앙 여정은 향후 북한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여러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먼저 복음 제시와 수용의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다. 북한 출신 성도들 중 복음의 메시지를 처음 들 때부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경우는 찾기 힘들었다. 그보다는 불신과 의심의 감정이 더 크게 일어났다. 기존의 북한 전반의 사상과 가치관은 복음의 메시지를 이해하는데도 장애 요소가 되었고, 북한에서 들어온 반기독교 교육도 거부감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런 상태에서 복음을 한번 전해들은 것이 회심과 신앙으로 이어지길 기대하기란 매우 어렵다. 복음을 듣는 이가 그 내용을 소화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단순히 이해와 받아들임의 시간 뿐 아니라 전하는 이와 듣는 이의 관계 형성을 위한 시간도 중요하다. 북한 출신 성도들 중 상당수는 전하는 이의 사람됨과 사랑의 섬김을 생각하여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성경 공부에 참여했다고 응답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생판 모르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국가에서 금지하는 교육 내용을 전한다면 누구라도 귀담아 듣지 않을 것이다. 전하는 이가 듣는 이에게 좋은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될 때에 전하는 메시지도 힘을 얻게 된다. 선교 현장에서 북한 사람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해

온 사역자들은 공통적으로 북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무종교인이나 불가지론자를 대상으로 한 전도 보다는 이미 종교를 가진 사람을 개종시키는 것에 더 가깝다고 이야기한다. 북한 체제와 사상이 이미 각 개인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생각하며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대상자와의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는 시간을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 발을 준비하는 일이 필요하다.

회심을 했다고 해서 사람의 가치관이 완전히 새로워지기는 어렵다. 신앙의 여정 속에서 마주하는 삶의 난관들과 재기되는 신앙적 의문점과 믿음의 흔들림은, 신자에게 자기에게 남아있던 잘못된 가치관과 의심, 자기 내면의 문제를 조우하게 한다. 북한 출신 성도들도 주로 권위를 받아드리는 문제, 그리고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에서 어려움 등을 경험하는데, 성경 공부나 신앙 지도에 있어서 이러한 난관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 복음이 제대로 전해졌는지, 그리고 신앙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데 있어서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 삶이 변화하는 지를 관찰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실제 현장에서 만나는 북한 출신 이들 중에는 겉으로는 배운 성경 말씀을 달달 외우고 또 말과 글로는 청산 유수이지만, 실제 삶은 변화되지 않고 이기심과 욕심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보이는데, 이런 성도들이 오히려 선교사나 현장사역자가 가장 양육에 애를 먹는 경우가 되곤 한다.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가지지 못한 가운데 겉으로는 너무 완벽히 성실한 신앙인을 연기하는 오

류에 빠지는 것이다. 북한에서 습관화 되어 걸  
으로만 잘 하는 습성이 신앙 생활에서 답습되지  
않도록 사역자와 공동체의 관심이 필요하다.

## 결론-북한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을 의지하고,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을 기대하  
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복음 전도라도 그러하지  
만, 북한 출신 사람들이 거부감과 물이해를 극복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드리는 데에  
는 영적인 체험과 깨달음의 순간이 있었다. 이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 영혼에게 역사하시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말 재주가 없고 듣는 이의  
자세도 떨떠름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진솔하게 전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결국  
북한 선교를 포함하여 선교의 장애물을 극복하는  
근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해외 북한선교현장의 경험은 북한 선교가 하나님  
께서 주관하시는 선교임을 다시금 우리에게 확증  
한다. 해외 선교 현장에서의 북한 선교를 살펴보  
면 대상자를 찾고 접촉하는 일부터 복음을 전하  
고 후속 조치를 이어가기까지 쉬운 일이 없다. 사  
역의 형태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북한  
사람을 만나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  
는 데에도 현장 사역자의 부단한 노  
력과 동역하는 성도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안전의 위협도  
감수해야 한다. 근래에  
해외에서 만나는 북한  
사람들은 한국행을 추

진하는 것이 아니라면 보통은 고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만남이 성사되더라도 시간과 공간의 제  
약으로 인해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양  
육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가능한 최선을 다하  
지만, 그 박해의 땅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얼마  
나 어려운지 우리는 감히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그렇게 복음을 듣고 제한된 신앙 훈련  
및 자료 제공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끝까지 북  
한 안에서 믿음을 붙잡고, 복음을 전하고, 공동체  
를 형성하는 역사가 여러 곳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들이 간증하는 신유의 기적과 하나님의 도우신  
역사를 전해들으며, 하나님께서 그 땅의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믿는 이들을 통해 당신만이 하실 수  
있는 사역을 진행하고 계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북한을 잊지 않으셨고 그 땅의 영혼  
들을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선교가 의미가 있다.  
우리의 역할은 무에서부터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  
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씨앗을 심  
는 것이 아닐까 싶다. 하나님께  
서 북한을 향해 보이시는 열  
심을 생각할 때, 그 흑암의  
땅이 절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선교가 불가능한 땅  
은 아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  
고 겸손한 마음으로 참여할 때, 하  
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을 얻게 되리라 확신한다. ☺





# 탈북민의 신앙여정과 북한선교

전 명 희 교수 (한동대학교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탈북민의 신앙여정에 관한 글을 의뢰를 받았을 때 단지 이 분야에 관해 몇몇 연구를 수행했을 뿐 이렇게 커다란 제목에 글을 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지식과 지혜 때문에 망설임이 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고쳐 글을 써야겠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그동안 연구와 현장에서 만난 탈북민들을 통해 필자 스스로 가졌던 문제의식과 궁금증이 잠정적이거나 결론에 이르게 된 경험 때문이다. 본 글은 필자가 지난 10여 년 동안 탈북민의 기독교 신앙 경험에 관련된 연구들을 통해 얻게 된 내용의 일부분이라 할 수 있다.<sup>1</sup> 필자 역시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 청년기에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되었는데 믿음을 모르던 세계에서 영적 세계로의 입문이라는 놀라운 삶의 변형을 몸소 체험하였다. 그러한 개인적 경험으로 탈북민들이 믿음이 없는 세계에서 나와 신

앙인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다 면밀히 들여다보고자 하였고 특히 신앙과 자기 발달과의 상호과정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신앙(信仰)의 보편적이고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믿음의 또 다른 의미로 ‘믿고 바라는 상태’를 의미한다. 신앙발달 연구로 유명한 제임스 파울러 교수는 신앙은 ‘보편적인 인간 존재의 조건’으로 어떻게 삶을 구성하고 무엇과 함께 삶을 가치있는 삶으로 만들 것인지와 같은 실존적 문제에 대한 답을 해나가는 과정이며, 따라서 신앙발달은 자기 정체성을 형성해가는 과정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북한 사회는 기독교 신앙을 접하기 매우 어려운 종교의 자유가 없는 체제로 김일성 3대 세습은 마치 하나의 거대종교와 같은 모습을 취하고 있다. 그들에게 있어서 ‘무엇인가를 진정으로 믿는다’라고 할 때 과거의 경험들로 인해 받는 혼란과 충돌이 클 수밖에 없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그동안 살아오던 삶의 가치관과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경험이 신앙의 경

1 이 글은 지난 10년간 탈북민의 신앙 경험에 관한 연구를 하면서 출간된 논문들과 가장 최근에 출간한 저서(『탈북민 이해하기』(2023, 지식공동체)의 내용에 근거를 두고 있음을 밝혀둔다.

힘이며 이러한 경험은 개인이 그동안 살아왔던 자기(self)라는 그릇에 담기면서 발달과 성화의 과정으로 들어가게 된다. 본 글에서는 주로 탈북 청년들이 경험하게 된 신앙의 여정을 소개해보고자 하는데, 신앙의 발달은 지체된 심리적 발달을 촉진하는 과정과 단계를 밟게 되므로 신앙발달과 자기발달은 서로 상호보완의 과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 신앙으로 두 번째 세계의 문을 열다!

탈북민들이 기독교 신앙에 입문하는 순간은 마치 그동안 살면서 잘 경험하지 못했던 두 번째 세계, 즉 영적인 세계에의 문을 열어젖히는 순간이라 표현할 수 있겠다. 종교의 자유가 말살되고, 무의식과 영적 영역에 대한 접촉을 단절시키는 북한에서의 삶은 영성이나 창조주 앞에 피조물로서의 내적 자기(Self)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지 못한 채 생존을 위하여 눈에 보이는 유물론적 시각으로 살아가는 한쪽 세계에서 삶이었다고 볼 수 있다. 거기에 인간 신을 섬겨야 하는 우상화가 진행되어 왔기 때문



에 북한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세계와의 접촉이 끊어진 듯 살아왔다. 또한 생존이라고 하는 가장 낮은 수준의 인간 욕구를 가장 우선시하면서 탈북의 과정을 밟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인간의 내재된 종교성과 내면에 존재하는 자기를 만나고자 하는 내적 작용으로 인해 영적 세계에 대한 갈증과 허기를 느끼고 있던 탈북민들은 ‘탈북’이라는 사건을 계기로 기독교 신앙을 접하게 되고 신앙에 입문하여 ‘두 번째 세계의 문을 여는 기회’를 맞게 된다.

탈북민들은 비로소 양안(兩眼)적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새로운 세계를 열고 이를 만들어가는 정-반-합으로서의 변증법적 과정에서 자신만의 신앙을 발전시켜 나가게 된다. 물론 탈북민이 아니라도 영적 세계에 대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북한과 같이 사회 전체적으로 종교에 대해 철저히 무지한 삶을 강요당해온 경우는 그리 많지가 않다. 많은 선교지 가운데서도 다른 종교를 믿는 사회나 사회적으로 우세한 종교가 없는 사회는 많지만, 북한과 같이 정권 전체가 최악의 종교탄압국으로서 인간 본연의 관심사인 영적 세계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못하도록 해왔던 사회로부터의 탈출은 그들에게 매우 의미있는 삶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신앙의 세계로 들어오면서 탈북민들은 불안과 공포의 북한사회와 양육 환경의 열악함(부모님 사망, 이혼, 가정폭력, 가난 및 북한 사회의 극심한 통제) 등으로 인해 지체되거나 미해결되었던 심리발달 영역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강렬한 만



남 속에서 재작동 되는 시간을 맞이하게 된다.

## 심리 영적 체질 개선을 통한 견고한 자기 만들기

신앙발달의 여정은 따라서 잃었던 자기 존재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함께 자기발달이 시작되는 새로운 심리영적 탄생의 과정이라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마치 생명을 유지하고 영양분을 공급받기 위하여 음식을 섭취하고 받아들이는 ‘소화 과정’에 비유해 볼 수 있다. 영적인 활동을 음식으로, 심리적 상태를 체질로 비유한다면 영성을 담는 그릇으로서의 마음의 준비도에 따라 소화되어 자신의 것이 되는 정도가 다르다. 탈북민들은 닫혀있던 삶의 두 번째 세계를 열게 되었을 때 놀라운 영적 능력과 맞닿게 되면서 그동안의 결핍과 필요를 채우고자 행위 중심의 다양한 영적 활동에 몰입(성경읽기, 암송, 금식기도, 새벽기도, 기도원 및 신앙훈련 입소, 신앙 공동체 거주 등)하게 된다. 이는 마치 소화력이 충분히 않은 사람이 뷔페식당에 가서 차려놓은 갖은 음식을 다 먹고자 하는 상태와 같다. 물론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생명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음식이 주어졌어도 소화를 잘 해내야 한다. 위장상태와 소화 과정에 어려움이 생긴 사람들이 체질개선을 하기 위해 자신의 체질에 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려면 자기만의 체질을 잘 알아야 한다. 탈북민들도 그동안의 고생으로 신체적으로 위장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는 심리영적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심리적 체질이 좋은 심력을 키우기 위한 개선이 먼저 필요한데, 이 부분이 바로 그동안 살아오면서 형성된 자기발달 측면이라 볼 수 있다. 결핍되거나 지체되어 있던 자기발달 과정은 예수님의 피와 몸을 먹는 것과 같은 영적 자양분이 공급되기 시작하면서 보다 왕성하게 심리영적 재흡수를 시작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영적 음식들도 소화 시키는 그릇으로서의 심리적 준비가 되지 않으면 양분의 축적도 되지 않는 상태가 될 수 있다. 내면세계의 안정과 자기발달 정도는 이러한 소화 능력과도 같은데, 심리적 체질 개선이 이루어져야만 영적 자원들이 내면으로 들어와 상호작용하면서 온전히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내면화 과정으로 이어지게 된다. 간혹 일부에서는 지나친 열정으로 인해 하나님에 어떤 분인지,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지를 충분히 알아가기도 전에 무조건 스파르타식의 훈련 등을 통해 북한선교의 도구로의 헌신이라는 사명을 불어넣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한 폐단으로 인해 탈북민들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이미지를 구축하기 이전에 권위적이며 위협적이고 횡포적인 하나님을 북한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내면화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 몇 해 전 기독교 대학에 입학했다 자퇴를 한 탈북 청년은 “여기는 사랑만 없으면 북한이랑 거의 똑같아요. 기독교에 사랑 빠면 아무것도 안 남잖아요”라고 말하였다. 북한 체제가 기독교 종교원리를 이상화에 이용하였기

에 교회와 기독교 단체들에 본질이 빠진다면 이들은 쉽게 과거의 경험과 연결이 되고 차별성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이 신앙에 입문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과 교회를 잘 소개하고, 아울러 전도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남한 사회 적응의 지난한 과정에 함께 함(presence)을 통한 성화 과정을 돕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 몰입과 상승을 지나 좌절과 하강으로의 경험

필자는 연구 과정에서 탈북 청년들의 신앙발달의 여정을 구분해보았는데, 신앙으로 입문한 후 ‘몰입과 상승’의 시기를 거쳐 ‘좌절과 하강’의 바닥으로의 시기를 경험한 후 ‘정체성과 균형’을 가진 ‘통합과 성장’으로 나아가는 N자형의 과정을 거쳐감을 알 수 있었다. 물론 질적 연구의 결과이므로 결코 일반화할 수는 없으나, 면접을 통해 만난 탈북민들의 경험을 정리해보며 조금이나마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탈북민들은 거부할 수 없는 섭리로 하나님과



의 강렬한 만남을 체험한 후 하나님을 완전한 이상화 대상으로 여기고 신앙적 몰입과정으로 인해 감정적으로 고양되고, 고통을 덜 느끼며, 신앙 안에서의 삶이 전부가 되는 자아의 팽창상태, 즉 과대 자기의 출현을 경험한다. 이때 모든 것을 영적으로만 해석하는 영적화(spiritualization)의 모습도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은 현실에 땅을 딛고 문화 적응의 고단함과 감정 및 관계 등이 마법처럼 해결되지 않는 홀독함을 경험하면서 그 이후에 찾아오는 좌절과 하강을 경험하게 된다. 모든 것이 가능한 것 같은 시기에서 모든 것이 되지 않는 시기로 접어들게 된다. 좌절과 하강의 시기는 겸손의 시기이며, 죄성을 가진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토마스 무어는 이러한 현상을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실로 이러한 영적으로 깊은 슬럼프와 어두움의 시기를 거치게 된다. 성령의 역사는 나타나지만, 내면화된 열매는 아직 맺지 않은 상태이다. 그래서 그들은 주변 사람들과 다투게 되고, 병리적 자기애의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때로는 외부에서 볼 때는 매우 신앙적인 모습으로, 내면에서는 좌절과 공허감으로 삶 가운데 분리적으로 나타나면서 보다 더 깊은 고통을 경험하는 흑화(nigredo)의 시기이기도 하다. 신앙이 매우 좋은 것으로 알려진 한 탈북 여성은 신앙 초기에 탈북 과정에서 아버지를 잃고 가까스로 목숨을 건져 한국에 도착하여, 그 힘들었던 모든 지난날이 하나님과 깊은 첫사랑을 경험하면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치유되



는 듯한 감정을 느꼈다. 이때의 행복감과 과대적 느낌은 세상의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힘을 주었다. 이 여성은 매주 교회들에서 부르며 간증을 하러 다니며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자랑하였고, 쉴 새 없이 기도하고 훈련받으면서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때의 모습은 모든 것을 극복한 신앙인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점차 그녀는 대학 공부의 어려움과 생활고에 시달리며, 무엇보다도 북에 두고 온 다른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아무도 없는 홀독한 외로움 등으로 점점 우울해졌고, 간증을 다녀온 날은 더욱 공허해져서 밤에 잠자리에 들어서 울기를 반복하였다고 하였다. 결국 학교를 그만두고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할지 완전히 길을 잃은 듯한 시간이 몇 년이 지나갔고, 이로부터 나와 현실감을 가지고 신앙과 삶을 통합하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이때의 경험은 그 어떤 신앙으로도 아무 것도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끝의 절망과 좌절의 느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탈북민들의 심리적 좌절과 고통, 트라우마적 감정 기복 등을 통합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채 겉으로 드러난 신앙적 모습으로만 파악하게 되면 이들은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해낼 힘을 얻기가 힘들다. 이 과정을 지나가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공감적으로 구현하는 보이는 성숙한 대상과의 안전한 관계 경험이 필요하다. 더욱이 탈북민들에게는 많은 경우 그러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가족의 해체와 상실, 그리고 가족 간 갈등을 많이 경험하기에 가족을 대체하는 정(情)-관계 공동체로부터의 심리적-영적 돌봄

이 함께 요구된다.

## 정체성과 균형을 가지고 통합과 성장으로 나아가기

앞서 설명된 심리영적 체질 개선은 자신을 상대해주는 누군가와 정(精)의 관계를 통해 가능하다. 탈북민에게 있어서 이러한 관계가 과연 쉽게 생길 수 있을까?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애착을 형성하고 정을 나누는 관계는 작은 공동체들을 통해 가능했었고, 대표적으로 가족관계나 신앙활동을 함께 하는 신앙 공동체(faith community)이다. 한국인에게 있어서 이러한 정을 나누고 우리성(wenness)을 경험하는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공간을 오랫동안 공유했어야 하며 적인지 편인지를 구분할 수 있을 만큼의 역사성을 지녀야 한다. 이러한 점이 탈북민들에게 어려운 부분이다. 가족의 상실과 해체로 인해서 그러한 가족들은 남아있지 않고, 지역의 친구나 이웃도 없는 상태로 한국의 어느 지역으로 배치를 받게 된다. 아예 외국인도 아니고 남한 사람도 아닌 그들이 탈북하여 한국에 들어왔을 때 가장 어려운 점이 정(精)붙일 곳이 없다는 것이다. 관계는 시간이 오래 걸려야 하며, 친구처럼, 가족처럼 자신을 표현하고 허용할 수 있는 장이어야 한다. 이러한 정(情)-관계를 이룰 수 있는 공동체와 관계가 제공되어야만 편안함을 누리고 자신의 본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다. 그러한 전환적 장소(場所) 안에서 지체되었던 자기발달 과업이 가능하다. 심리적 고



같이 해소되고 채워질 때 소화 과정은 원활해지며 신앙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몸에 맞지 않는 음식을 가려먹듯이 영적으로도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방식의 성장 과정을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탈북민 사역자들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연구에서는 탈북민들이 교회에서 남한 성도들과 평등하고도 사랑을 나누는 이러한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데 이러한 기회가 부족함을 지적하고 있다. 남한의 교회들은 탈북민 사역을 따로 두는 경우가 많고 또한 이들에게 주로 가르치려고 하는 모습을 손쉽게 보인다고 한다. 탈북민들의 신앙 여정에서 문화 적응도 되지 않고 신앙에서도 지어져가는 과정 중에 있어서 어쩌면 다소 부족한 존재들로 비춰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이 경험한 강렬한 하나님에 대한 경험,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새로운 세계로 들어오면서 갖추게 된 신앙적 역량들은 이들이 시간이 지나 균형감각을 가지고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었을 때 한국 교회에 새로운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다. 즉, 자신들이 서있는 주변부에서 창조적 중심(creative core)이 되어 하나님이 하시는 또 다른 일의

방식을 보여주는 변혁적 존재들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곳까지 이르기 위해 탈북민들에게 있어서 일정 기간의 안전한 장소, 회복의 장소가 요구된다. 그것은 단지 영적 영역뿐 아니라 영성을 담아내는 그릇으로서의 심리적 자기발달의 과제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자유롭고도 건강한 아이들을 키워낼 수 있는 사회가 아니었다. 따라서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돌아보았을 때 사랑받아야 할 시기에 받지 못해 결핍되었고, 지체되었던 자기발달의 여러 영역을 돌아보아 장성한 수준에 이르기까지의 좌충우돌의 시간을 인내하며 함께 담아줄 준비된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다. 이미 탈북이 시작되어 20여 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그러한 과정을 몸소 경험한 탈북민 사역자들과 또 이들을 도왔던 노하우들이 우리에게 조금씩 축적되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은 탈북민들의 삶의 여정, 신앙의 여정에 대한 막연함을 지니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과정에 대한 이해가 탈북민을 환대하는 마음으로 품고 함께 통일선교로 나아가는데 희망이 되기를 바라며 이 글을 맺는다. ☺



# 북녘<sup>1</sup> 선교 연구 방법론

주 성 종 선교사

필자는 중학생 때에 중국 선교에 헌신하였고, 그 후 1996년 첫 중국 단기선교에서 북녘 소식을 보고 들었다. 그 때에 “하나님, 제가 무지했습니다. 제가 무관심했습니다”라 회개했는데, 이는 북녘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이 아니라, 그 땅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이었다. 그 후부터 북녘 선교를 훈련 받고 파송 받아 선교사로 사역을 하는 중에 “북녘 선교 연구 방법론” 책을 출판하게 되었다. 이 책은 북한이탈주민의 기독교 목회자들의 헌신을 연구한 것으로서 필자의 문화인류학 박사(Doctor of Interculture Studies) 학위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해당 연구를 통해 도출된 내용을 요약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1 북한/남한, 북조선/남조선' 정치적이고 상대적인 언어가 아닌 통일언어로 '북녘/남녘'로 표현을 했다. '녘'은 '쪽, 방향'이라는 의미로, 남과 북이 공동 집필 중인 겨레말 큰 사전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다.

## 1. 연구 방법론: 근거이론 (Grounded Theory)

본 연구에 활용된 질적 연구방법인 '근거이론(Grounded Theory)'으로 연구 참여자들의 행위와 그 행위에 미치는 요인들을 보다 깊게 이해하여 특정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 모형을 만들었다. 근거 이론이란 질적연구 방법론의 하나로, 질적 연구는 특정한 그룹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나 이론이 부재하거나, 기존 이론이 연구하고자 하는 문제의 복잡성을 충분히 포착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론을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 방법이다. 연구자는 본 연구를 위해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북녘선교와 관련된 주제로 국내에서 발표된 논문 73편을 분석하므로, 그동안 북녘 선교가 주로 어떠한 방향으로 연구되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 후로 현재까지 논문이 50

편이 추가되어 123편을 다시 분석하였다.<sup>2</sup> 가장 많은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41편과 북녘이해 14편으로 전체 34.4%를 차지했다. 그리고 남녘교회의 북녘선교에 대한 인식과 문제점, 그리고 역할에 대한 논문이 21편으로 17%를 차지했다. 그 밖에는 통일에 관한 논문(15편), 성경과 신학적인 분석(12편), 자유와 인권(10편), NGO 및 복지와 의료 관련 논문(7편) 등이었다. 연구자가 본 논문을 작성할 때에는 탈북민 목회자에 관한 연구가 한 편이었고, 지금까지도 전체 3편으로 파악되어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연구자는 본 연구주제에 가장 적합한 방법론으로 근거이론을 채택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참여자인 북한이탈주민 목회자가 살고 활동하는 세계를 이해하여 그들의 헌신에 대한 주관적 의미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기에, 사회적 구성주의(Social Constructivism)를 연구의 철학으로 삼았기에, 이미 있는 이론에서 시작하지 않고 연구 참여자가 경험한 것을 중심으로 주관적 의미를 발전시키는 귀납적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북한이탈주민 중 복음주의 기독교 목회자로 헌신한 참여자 3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개방형 질문을 통해 연구의 기본 자료를 생성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이 헌신하게 된 요인, 과정, 그리고 헌신 이후의 영향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내부자적 관점으로 개

방 코딩(Open Coding), 초점 코딩(Focus Coding), 축 코딩(Axial Coding)의 과정으로 범주가 형성되었다. 이어서 지속적으로 범주와 범주의 비교 분석을 실행하였고, 이론적 통합 과정에서 표, 패러다임, 도식, 그림 등을 만들어 헌신 이론을 생성할 수 있었다.

## 2. 북한이탈주민의 기독교 목회자의 헌신의 요소, 과정, 영향

연구 질문은 헌신의 결심까지, 결심 이후의 과정, 그리고 헌신 이후의 변화와 영향 등 3가지 현장에 대해 진행되었다. 첫 번째 현장에서는 회심과 회심 이후의 삶이 헌신의 결심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는데 그 중심에 ‘어려움’이 있었다. 회심의 결단에 23명이, 회심 이후의 삶에도 19명이 어려움의 영향을 받았고, 헌신의 결단에도 어려움의 영향에 대해 22명이 답하였다. 참여자들은 회심과 헌신의 결단을 북녘이나 중국, 또는 제3국의 수용소에서 경험하였으며, 남녘에서도 문화적 차이와 세속화의 문제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다. 주요 고난은 탈북 과정과 남녘에서도 동일하게 경험한 경제적 어려움과 북녘과 중국에 두고 온 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었다. 그리고 탈북 과정 중에는 피신과 투옥의 위기를 겪었다. 이와 같은 분석의 결과로 헌신의 핵심요소로 ‘어려움’을 발견하였고, 헌신의 결단 이후 과정에서 어려움을 중심으로 관찰하게 되었다.

두 번째 현장인 헌신의 결단 이후에도 겪게 되는 어려움의 종류로는 가장 많은 20명이 ‘남

2 박사 27편, 석사 40편, 학술지 56편. 본 책에서는 2010년~2019년에 발표된 논문을 분석하였다.

넬교회의 권위적 태도'라고 답했고, 17명은 '인격 결함과 신앙의 문제'라고 했으며, 10명은 '신앙인과 목회자로의 정체성 결여' 이라고 진술했다. 또한 상황별로는 '자신의 문제'로 25명이 답하였는데, 자신의 성격이나 인성, 신앙과 죄 유혹의 문제, 그리고 가족들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24명은 '남넬교회의 북한이탈주민을 대하는 태도'라고 했는데, 서로의 다름과 서로의 관계 설정으로 인한 불편함 등이었다. 이어서 '북한이탈주민 사역자로서의 어려움'에 대해 22명이, '북한이탈주민으로 인한 어려움'에 대해 19명이 진술했다. 연구자는 발견된 헌신 과정 중에 발생하는 어려움을 4가지로 분류하였는데, 외부적 요인인 관계의 어려움에 대해서 28명이 110회 언급하였고, 환경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27명이 43회 대답하였다. 그리고 내부적 요인인 내적인 문제는 19명이 50회 언급하였으며, 신앙의 문제는 18명이 41회 진술했다. 이러한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였는지 정리하면, 첫째, 관계의 어려움은 나를 죽이고, 기도하는 것으로 극복하였다. 둘째, 환경의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어 주심, 사람의 도움, 그리고 기도와 응답을 통해 극복하였다. 셋째, 내적인 어려움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함으로,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환경을 막으심으로 극복하게 되었다. 넷째, 신앙의 어려움은 말씀과 하나님 중심의 믿음과 소명이 회복됨을 통해서 극복하게 되었다.

세 번째 현장은 헌신의 과정을 겪으면서 받은 영향에 대한 연구이다. 헌신 과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므로 참여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발견할 수 있었다. 관계의 어려움을 극복하므로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었고, 환경의 어려움을 극복하여 훈련의 필요성을 깨달았으며, 내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므로 자신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섭리를 돌아보아 정체성과 사역자의 태도가 확립되었고, 신앙의 어려움의 극복은 하나님 중심으로 우선 순위를 따르게 되었다.

참여자들은 이러한 어려움, 극복, 변화의 경험을 통해 헌신의 핵심과 그 핵심에 따르는 비전을 세우게 되었다. 첫째, 사회적 영향력을 미치는 '빛과 소금'의 비전은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는 변화를 통해 발견한 인격의 중요성 때문이었다. 둘째, '목회와 선교'에 대한 비전은 사역관과 목회관을 정립하게 되므로 헌신의 핵심이 사역자의 태도에 있음을 발견하여 세워졌다. 셋째, '시대적 사명'을 따른 다음 세대 준비, 교회개혁과 북한이탈주민 부서 발전이라는 비전은 하나님과 자신을 돌아보게 되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헌신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발견 때문이었다. 넷째, 한 영혼과 일꾼 양성이라는 '선택과 집중'에 비전을 둔 것은 우선 순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므로 헌신에 있어서 중심을 잡는 것이 핵심임을 발견하였기 때문이다.

### 3. 연구를 통해 발견된 핵심 범주와 생성된 이론

북한이탈주민들이 기독교 목회자로 헌신하게 되는 전 과정을 연구하여 발견된 핵심 범



주는 ‘어려움 (difficulties)’이다. 탈북 과정부터 헌신 이전의 신앙생활이 어려움 중에 있었고, 어려움이 헌신의 결단의 주요 요소였으며, 헌신 결단 이후에도 어려움은 지속되었으나 그 어려움을 극복하므로 헌신의 핵심을 발견하고 비전을 세우게 되었다. 어려움은 관계와 환경의 외부적 영향과 내적이며 신앙적인 내부적 영향으로 분류가 되었으며, 북한이탈주민 목회자로 하여금 헌신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북한이탈주민 목회자들의 헌신 이론은, “북한이탈주민이 헌신을 결단하기까지의 과정에 영향을 미친 주 요인은 ‘어려움(difficulties)’ 이었고, 헌신 이후 과정 중에 겪는 위기를 극복하면서 진정한 헌신의 의미를 발견하여 헌신이 강화됨으로 헌신의 비전을 재정립하여 헌신이 지속되고 있는 중이다”이다. 이 헌신이론을 아래와 같은 헌신 모델을 그림으로 나타내었다.

#### 4. 본 연구의 제언

본 연구는 북녘선교의 대상이었던 북한이탈주민의 목회자로의 헌신을 연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내재자적 입장에서의 인터뷰를 통해서 헌신의 요소와 과정, 그리고 영향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선교는 어느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며, 통일은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기에 북한이탈주민의 목회자로의 헌신을 연구하는 것은 북녘선교와 통일선교에 매우 중요한 이론을 제시해 준다고 본다. 오대원은 남녘에 온 미국인 선교사로, 남북의 화해와 성경적 통일 운동에 헌신하였다. 그는 통일의 용어를 사용하기를 권하는데, “나는 남과 북이라는 용어를 더 좋아한다. 한반도를 둘로 나누는 정치적 경계선이 제거된 용어이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비극은 그 땅이 남과 북



그림 24. 북한 이탈 주민의 목회자로의 헌신 모델  
(A Commitment Model of North Korean Defectors to Ministry)

으로 임의로 분열되었다는 것이다.”<sup>3</sup> 이에 본 연구를 북한이탈주민 헌신자, 남녘교회, 그리고 북녘선교 사역자들에게 제안한다.

북한이탈주민이 겪어 왔고 지금도 겪고 있는 어려움의 모든 현실 안에 갇힌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발견한다. 참여자들은 이러한 어려움이 극복해야 할 대상이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도구임을 공통적으로 고백하였다. 오대원은, “고통을 겪지 않은 자들은 용서를 선포할 수는 있어도 용서가 마음속 깊이에서 우러나오지는 못한다”고 하였다(오대원 2002, 32-33). 이에 북한이탈주민 헌신자들이 헌신의 과정에서 겪는 고난의 의미를 아픔의 흔적에만 두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해석하므로 북녘 선교와 통일의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란다. 피동적 자세가 아닌 능동적 자세로, 경험에 치우치지 않는 이론과 실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끌려가는 자들이 아닌 함께 이끌어 가는 지도자로서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남녘교회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허락하신 고난의 의미를 확인하여 고난의 신학을 재정립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 헌신자들을 통해 남녘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놓치지 말고, 고난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존중하며 신앙과 교회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힘써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경제적, 정치적, 이념적 요인으로 인한 우월적 자

세를 지양하고, 신앙적, 성경적, 교회론적 시각으로 북녘 출신 헌신자들을 바라보아야 한다. 또한 앞으로 북한이탈주민 목회자들을 사역의 대상자가 아닌 목회적 관점으로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를 바란다. 어려움(Difficulties)은 북한이탈주민 헌신자들에게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헌신의 결심을 하며, 헌신 과정을 통해서 성숙한 변화를 불러 일으키는 핵심 주제(Core Theme)이다. 오대원은, “하나님께서도 남녘도 북녘만큼 사랑하시며, 북녘도 남녘만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신다”고 진술한다(오대원 2002, 16-19). 하나님께서 북한이탈주민 헌신자들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은 그 극복과정을 통해서 주시는 북녘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북녘 선교는 오랜 시간 다양한 방법으로 발전해 왔는데, 북녘으로 들어갈 수 없을 때에는 기도와 방송 선교에 집중했고, 중국이 개방되면서 북녘에 근접한 사역이 활발해졌다. 그리고 1990년대 말에 일어난 비극적인 고난으로 수많은 북녘 동포들의 탈북이 시작되면서, 북녘 선교는 북중 국경일대와 중국 전역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다. 때로는 남북 관계의 개선(改善)과 교류 증대, 부분적인 개방 등을 통해서 북녘 안에서의 기독교 활동이 가능하기도 하였다. 무엇보다 남녘으로 보내신 3만여 명이 넘는 북한이탈주민들과 그들 중 목회자 헌신자를 통한 사역까지 정착되고 있는 중이다. 이에 북녘 선교 사역자들은 자신이 북녘 선교의 전문가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동료

3 오대원, 두려움의 집에서 사랑의 집으로, 양혜정 번역 (서울: 예수전도단, 2002), 34-35.

사역자들과 북녘 출신 목회자들을 존중히 여기면 연합의 사역을 펼쳐야 할 것이다. 이는 북녘 선교의 다양한 방법의 개발과 사역 현장에 대한 서로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남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북녘 선교 사역의 장점이 있지만, 북한이탈주민 사역자들에게도 있는 장점과 그들이 감당하기에 더 유리한 사역 현장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오대원은, “지난 40년 이상을 크리스천 사역에 몸담아 온 자로서, 내가 가장 내려놓기 어려운 것은 내 자신의 개인적인 야망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계속적으로 나는 나의 어떤 좋은 생각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 또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틀림없다고 생각하는 실수를 범한다. 종의 정신에는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성공을 찾는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행해지고 그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것이다(오대원 2002, 75)”라고 했다. 어려움에 대한 의미와 해석은 시대와 경험의 정도에 따라 분명히 다를 것이다. 그러한 한계 가운데 31명의 연구참여자들의 답변을 가지고 연구 결과가 나온 것이기에, 앞으로 어려움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고난의 신학”에 대한 연구는 통일 과정을 지나고 있는 교회와 북한이탈주민 헌신자들에게는 중요한 주제일 것이라 본다. 변영의 시대에 고난의 신학을 연구하는 것은 매력이 없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 신학과 예수를 따르는 제자도, 십자가의 정신으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지상명령 완수와 관련



〈변영의 시대에 고난의 신학은 매력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통일 과정을 지나고 있는 교회와 북한이탈주민 헌신자들에게 중요한 주제이다.〉

하여 북한이탈주민과 헌신자들을 통해 주시는 고난의 의미를 연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의 참여자 중에 10명이 20-30대 헌신자인데, 그들 스스로 북녘 선교와 헌신의 의미를 연구하고 정립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끝으로, 본 연구 과정과 이론을 통해 앞으로 북한이탈주민 사역자들 가운데 학문적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 



# 탈북민의 신앙여정과 북한선교

오바나바 교수 (숭실사이버대)

## 1. 들어가며

회심은 어느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는다. 시작에서 회심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다양한 요인이 상호 작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사람이 회심할 때,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삶의 정황에 따른 회심의 과정을 경험한다. 또한 이러한 신앙의 여정 가운데 독특한 회심 유형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는 탈북민의 신앙여정에도 적용된다. 현재 탈북민의 회심에 관한 이론은 아직 정립되지 않은 것 같다. 무엇보다도 탈북민의 회심 과정은 극적이고 독특하며 특별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고난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회심 이론들을 가지고 분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서 탈북민의 신앙여정을 총체적으로 드러내고 모형을 하기 위해서는 회심의 요인, 회심의 과정, 회심의 유형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자는 근거이론을 활용하여 탈북민의 회심의 요인, 회심의 과정, 회심의 유형을 발견하

고 그들의 신앙여정을 총체적으로 드러내고자 한다. 그런 후에 본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북한선교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 2. 탈북민의 신앙여정

2021년 3월에 탈북민 20명을 대상으로 신앙여정을 인터뷰하였다. 그들은 탈북 후에 중국, 동남아 국가, 러시아, 한국에서 기독교로 회심하였다. 20명의 탈북민(이하 연구참여자 또는 참여자)은 일정한 신앙교육을 받은 후에 정식으로 세례를 받았고, 이단 교회가 아닌 복음주의에 입각한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인터뷰 질문은 첫째,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 당신의 삶을 어떠했습니까? 둘째, 무엇이 당신으로 하여금 기독교인이 되게 하였습니까? 셋째, 당신이 기독교인이 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넷째, 당신은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했습니까?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대답들을 본 연구자는 근

거이론방법론에 따라서 분석하였다. 근거이론방법론은 인터뷰 자료에서 개념을 뽑아내고, 거기서 하위 범주 및 상위 범주를 만들고 모형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탈북민의 신앙여정을 연구하는데 적합하다.

근거이론방법론을 사용하여 인터뷰 자료에서 1,242개의 개념과 115개의 하위범주를 도출하였다. 115개의 하위범주는 8개의 상위범주로 수렴되었는데, 그것은 ‘회심 이전의 삶’, ‘회심의 장애 요인’, ‘회심의 장애 극복 수단’, ‘회심한 이유’, ‘회심에 영향을 준 사람’, ‘특별한 신앙체험’, ‘회심 이후의 삶’, ‘하나님께 헌신’이다. 8가지 상위범주는 탈북민의 신앙여정에 있어서 중요한 키워드가 되기 때문에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연구참여자들의 ‘회심 이전의 삶’에 대해서 본 연구자는 221개의 개념을 도출하여 18개의 하위범주로 나누고 분석한 결과, 회심의 요인들이 다양함을 발견하였다. 그중에서 북한, 탈북 과정, 제3국, 한국에서 나타난 ‘고난의 삶’이 회심의 요인 중에서 제일 크게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회심 이전의 삶’에 대해서 총 130회를 언급하였는데, 그중에서 ‘고난의 삶’에 해당하는 내용이 75회나 되었다. 이는 그들이 지속적인 고난의 상태에 노출되어 있었음을 나타낸다.

둘째, 연구참여자들의 ‘회심의 장애 요인’에 있어서 심층 면담 결과, 143개의 개념이 도출되고 22개의 하위범주가 생성되었다. 이를 통해서 회심할 때 장애 요인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그들은 대체로 ‘정신적인 문제’와 ‘건강하지 못한 삶의 모습’과 ‘기독교에 대한 체험’과 관련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그중에

서 참여자들은 ‘회심의 장애 요인’에 대해서 총 83회를 언급하였는데 ‘정신적 문제’의 주제를 35회나 언급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북한에서 살면서 배우고 익히고 체화했던 삶의 기준, 원칙, 생각, 관점들이 있다. 이러한 것들은 정신적인 부분에 해당하는데, 회심 전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회심 과정에서 장애물로 작용하였다. 그렇지만 그들은 회심의 장애물들을 인식하면서 자기들의 삶의 형태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을 회심 과정에서 만들어내었다. 그런 후에 각자의 모습들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재해석하는 과정을 거쳤다. 한 가지 예로 참여자들에게는 북한에서 살면서 받았던 주체사상 교육이 회심의 방해물이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관점의 전환을 경험하며 오히려 주체사상이 회심의 장애 극복 수단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셋째, 연구참여자들의 ‘회심의 장애 극복 수단’을 살펴보면 168개의 개념을 도출하여 24개의 하위범주로 나눌 수 있었다. 연구 분석 결과, 회심의 장애 극복 요인들이 다양하였다. 그것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에 해당하는 주제들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주제들과 ‘믿음을 세우는 데 역할’을 하는 주제들로 나눌 수가 있다. 참여자들은 회심의 장애 극복 수단에 대해서 총 118회를 언급하였는데 그중에서 75회를 ‘하나님의 만남’에 대한 주제들에 관해서 이야기하였다. 본 연구자는 이를 통해서 그들이 회심의 장애물들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주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넷째, 연구참여자들이 ‘회심한 이유’를 55개의 개념을 도출하고 8개의 하위범주로 나누어서 살펴 보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매우 경험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실제로 체험한 탈북민들은 회심의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회심한 이유인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경험’, ‘신실한 기도 응답’, ‘하나님을 보여주는 기독교인의 사랑’, ‘믿음을 키워주는 성경’,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설교’, ‘강력한 성령 체험’, ‘기적을 경험하는 치유 사건’, ‘진정으로 원하는 행복한 삶’은 북한이탈주민의 회심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가 있다.

다섯째, ‘회심에 영향을 준 사람’을 살펴보았을 때 연구참여자들은 회심의 여정에 있어서 기독교인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비율로 따지면 선교사, 목회자, 지인, 선생님, 가족, 교인 순으로 도움을 받았다. 이와 같은 기독교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을 보이는 사랑으로 나타내 주기 때문에 회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고 볼 수 있다.

여섯째, ‘특별한 신앙체험’은 사람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동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주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 그렇지만 ‘특별한 신앙체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에 속해 있으므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될 것

이다. 본 연구에서 특이점은 참여자들이 ‘특별한 신앙체험’을 하였지만 계속해서 그 체험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만남 이후에 건강한 교회에 출석하며 성도로서의 본분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일곱째, 연구참여자들의 ‘회심 이후의 삶’에 있어서 키워드는 ‘변화’이다. 그것은 인간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후의 결과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들에게 있어서 고난의 삶을 극복하고 회심의 장애물을 넘으며 믿음의 삶으로의 전환은 천지가 개벽하는 것처럼 큰 사건이었다. 그러한 가운데서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변화는 회심의 결과에 해당하고 회심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

여덟째, 연구참여자들은 회심 이후에 삶의 변화를 넘어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의 삶을 준비하고 있다. 그들이 헌신하는 영역들은 통일한국을 준비하고, 한민족을 복음화하며 북한 백성을 돕고, 일상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별히 그들은 지나온 고난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헌신한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헌신에는 그들만의 신앙고백이 담겨 있다.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탈북민의 회심에 있어서 가장 주된 요인은 경험적인 것들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회심의 유형을 살펴보아도 경험적 요인들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은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회심했고, 탈북민의 회심 과정은 ‘고난-극복’의 기본적 틀을 가지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탈북민은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고난의 삶을 극복했고, ‘하나님과 만남’은 그들의 회심에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 이를 토대로 탈북민의 ‘회심 과정 모형’을 정리하면 [고난 → 하나님과의 만남(극복) → 결신 → 변화 → 헌신]이 된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에서 주체사상의 영향을 받고 고난의 삶을 살았던 탈북민은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 회심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 고난을 극복한 것은 회심 과정의 일반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탈북민은 ‘하나님과 만남’으로 회심의 장애 요인들을 제거할 수 있었고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었다.

### 3. 북한선교를 위한 제언

#### 1) 탈북민의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는 전문기관 설립

본 연구자가 만난 탈북민들은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고난의 삶’을 극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의 심층 면담 속에서 오랜 고난의 경험 속에서 생겨난 상처들과 아픔들이 여전히 존재함을 알게 되었다. 탈북민들은 트라우마를 경험하며 고난의 기억을 담고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고난 극복이 계속해서 지속되기 위해서는 한국교회가 탈북민들과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교회는 그들의 고난의 삶을 이해하고 치유하며 회복시킬 수 있는 전문기관을 설립하고 그것을 감당할 사역자를 양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예로 탈북민에게 특화된 ‘기독치유회복상담센터’의 설립이다. 그 기관은 탈북민에게 치유 및 회복의 통로가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 2) 탈북민에게 맞는 복음 제시 모델 개발

본 연구를 통해서 북한에서 주체사상의 영향을 받고 ‘고난의 삶’을 살았던 탈북민은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회심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고난을 극복한 것은 회심의 여정에서 일반적인 특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탈북민 중에서 불신자에게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그들에게 맞는 복음 제시를 통해서 회심으로 이끌어야 할 것이다. 특별히 CCC(한국대학생선교회)의 4영리와 같은 간결하면서도 임팩트 있는 복음 제시 모델을 만들어서 탈북민에게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해야 할 것이다.

#### 3) 북한사람을 위한 맞춤형 기독교 콘텐츠 제작

‘북한선교를 위한 미디어 센터’를 세우고 기독교 콘텐츠를 제작하여 북한에 보내야 한다. 본 연구

자가 만난 탈북민들 대부분이 북한에서 ‘한국을 간접 경험하는 삶’을 살았다. 그들은 중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간 한국 드라마와 음악 CD를 통해서 한국의 실상을 알게 되면서 북한 체제의 허구성을 깨달았다. 그 깨달음은 결국 탈북의 큰 동인이 되어 북한사람들로 하여금 두만강과 압록강을 건너게 하였다. 이만큼 미디어의 영향력은 지대하다. 그러므로 이제는 한국교회가 ‘미디어를 통한 북한선교’에 투자하여야 한다. 북한사람들의 상황을 고려하고 상업성 있는 콘텐츠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복음과 회심에 키워드를 둔 영화와 드라마와 음악과 같은 기독교 콘텐츠를 만들어서, USB 및 다양한 정보 저장 장치에 넣어서 북한으로 보내야 한다. 그래서 북한사람 한 사람이라도 기독교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서 회심의 접점을 넓혀가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기독교 콘텐츠를 만들려면 많은 재정과 인력이 필요하다. 이는 또한 하나의 대형교회가 감당할 수도 없다. 따라서 각 교단이 연합하여 재정을 투자하고 미디어 전문가를 고용하여 ‘북한선교를 위한 미디어 센터’를 만들어서 선택과 집종의 북한선교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 4) 북한사람이 있는 지역으로 선교사 파송 및 선교센터 구축

북한사람이 있는 지역에 전략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센터를 구축하여 그들을 도와야 한다. 중국 및 러시아와 제3국에서는 선교센터 이름으로 활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비즈니스 등으로 위장할 필요가 있다. 연구참여자 9명은 ‘하

나님을 알아가는 삶’에서 중국 내 조선족 교회와 선교사들의 도움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다. 또한 그들은 중국뿐만 아니라 제3국에 마련된 미션홈과 신학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났다. 참여자들은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은 이후에 복음을 접하였고, 탈북과정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체험하였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 그런 후에 한국으로 오기 전에 각 나라와 각 지역의 선교센터에서 신앙교육을 집중적으로 받았다. 결국 그들은 이러한 과정에서 복음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내릴 수 있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해외에 북한사람이 있는 지역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직접적인 북한선교가 막혀 있는 상황에서 북한선교의 대안이 될 수 있다.

#### 5) 북한사람에게 특화된 제자훈련 프로그램 제작

북한사람에게 특화된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만들고 시행해야 한다. 연구참여자 9명은 제자훈련을 통해서 회심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였다. 참여자들은 기독교 탈북민 대안학교와 각 교회에서 제공하는 제자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회심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그들은 제자훈련을 통해서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고 결단할 수 있었다. 그런데 탈북민이 제3국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한국에 와서, 세상의 성공에 마음을 빼앗겨서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그들의 상황들이 반영된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훈련을 통해서 탈북민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 6) 기독교 탈북민 대안학교 돕기

한국교회가 기독교 탈북민 대안학교를 인적·재정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연구참여자 중에 3명이 기독교 탈북민 대안학교를 통해서 회심하였다. 또한 참여자 중에 6명이 기독교 대안학교 선생님들의 사랑과 격려로 하나님을 만났다. 이것은 특별히 기독교 탈북민 대안학교가 복음 증거 및 신앙훈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증거이다. 따라서 한국교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복음 전도의 효율성이 높은 기독교 탈북민 대안학교에 투자하여 두 단체가 윈(Win)-윈(Win)의 관계로 성장해야 할 것이다.

## 7) 실험적인 교회 개척 운동

통일 후에 북한에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실험적인 교회 개척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한다. 5명의 연구참여자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하였다. 또한 7명의 참여자는 목회자의 사랑과 권면을 받고 주님을 만났다. 그런데 그들은 한국 성도만 다니는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각 교회의 북한선교 예배부가 있거나 탈북민 출신 목회자가 담임하는 교회에서 복음을 접하였다.

이는 앞으로 통일 이후의 교회 모델에 예표가 될

수 있다. 즉 탈북민 중심의 교회이나 아니면 남과 북의 성도가 함께 있는 교회로 나눌 수가 있다. 지금도 2가지 부류의 교회 개척은 계속되고 있다. 그렇지만 각각의 교회가 정교화 되고 시스템을 갖추었다고 말하기에는 시기상조인 것 같다. 하지만 이러한 교회 개척 운동이 지속해서 활성화가 된다면 앞으로 북한에 세워질 교회의 모형들이 만들어질 것이다.

## 4. 나가며

탈북민은 삶의 정황이 어떠한 간에 회심의 여정에서 공통적으로 고난을 경험하였고, 그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고난의 삶’을 극복하고 회심하였다. 탈북민은 회심한 후에 변화된 삶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하는 방향으로 성장하였다. 결론적으로 북한에서 주체사상의 영향을 받고 고난의 삶을 살았던 탈북민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회심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고난을 극복한 것은 회심의 여정에서 일반적인 특징으로 볼 수 있다.

바라기는 본 연구결과와 적용이 탈북민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유용한 지침이 되고, 더 나아가 남북한 사람이 복음통일을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한다. 🙏



# 이끼심

7화 - 그곳에서 만난 천사들

김 서 윤 전도사

북한 보위부 수감시설의 상황은 매우 열악했다. 제대로 된 식사가 공급되지 않는데다, 탈북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비좁은 공간에 모두가 눕지도 못하고 앉아서 자는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낮에는 벌을 서듯이 서 있어야 했고, 그로 인해 길게 느껴지는 시간이 고통스러운 하루를 만들었다. 또한 긴 침묵 속에서 조사실로 불려나가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아야 했다. 우리 가족은 그렇게 몇 차례의 모진 조사를 견디고 다행히 단련대로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 여동생은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한 탓에 북한까지 끌려오면서 식사를 거의 못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몸무게가 30킬로에 불과한 여동생은 장티푸스로 인해 상태가 급격히 쇠약해졌고 약 하나 처방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매우 위태로운 상황까지 갔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보위부 조사를 끝마치고 온성에 있는 노동단련대로 이동해야 했다. 여동생은 나와 어머니에게 시체처럼 이끌려 겨우 목숨만 부지해서 그곳을 나왔다. 단련대에서는 정신교육과 육체노동이 함께 시작되었다. 외워야 하는 규

칙은 또 왜 이렇게 많은지... 40가지가 넘는 조항을 다 외우고 조별로 검사를 받아야 했다. 조에서 한 사람도 틀린 사람이 없어야지만 방에 들어가서 잘 수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일을 나갔다. 옥수수나 벼를 추수하기도 하고 벽돌을 나르거나 미장을 돕는 등 건설 현장에서도 일을 했다.

그렇게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티는 가운데 어머니께서 그 곳에서 여성 수감자 총 책임자가 되셨다. 책임자가 되면 단련대 안에서 여성 수감자들을 관리하기도 하지만, 그 외에도 외부로 동원되어 일하는 날에는 이탈자나 도망자가 있으면 그 책임도 져야 하는 부담이 막중한 자리였다. 그럼에도 어머니께서 총 책임자가 되신 것은 여군 출신이셨던 배경과, 고난의 행군시절에도 딸 둘을 버리지 않고 잘 키웠고, 단련대 안에서 혹시나 도망갈 기회가 생기더라도 딸들을 버리고 도망가지 않을 것이라고는 판단이 작용했던 것 같다. 웬일로 그들이 사람을 잘 보았다. 어머니는 항상 모범적이셔서 단련대에서도 인정을 받으셨다.



〈북한의 미결구금시설에서의 열악한 식사를 표현한 삽화 (출처=휴먼라이츠워치 “북한의 잔혹한 미결구금제도” 동영상 캡처)〉

특히 가을을 맞아 두만강 주변에 밭으로 나가 일하는 날이 많은데 책임자였던 어머니의 임무는 더욱 막중했다. 아침마다 건강상태가 그나마 좋아 보이고 건강해 보이는 사람들을 선출해서 외부로 동원되는데, 일꾼들과 함께 책임자로 나섰던 어머니는 항상 인기가 좋으셨고 모두가 어머니와 함께 가길 바랐다. 이유인즉슨 어머니는 힘겹게 일하면서 옥수수 몇 알로 끼니를 때우는 아저씨들이 항상 담배 한 개비에 대한 목마름을 해소해 주셨던 것이다. 노동자들은 제발 담배 하나만 피우면 소원이 없겠다는 간청을 했고, 어머니는 농장주 간부들에게 사정사정을 해서 꾀담배를 받으시면 직접 담배를 맡아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지쳐있는 노동자들에게 몰래 챙겨주곤 하셨다. 그렇게 해소가 되는 날이면 일의 능률은 오르고 어머니가 책임자로 나가는 날에

는 일터에서 도망자가 생기지도 않았고 농장에서 만족도가 높았다. 옛날에 어머니께서 아버지를 위해 담배를 맡곤 하셨는데, 그때의 실력을 발휘해서 아저씨들에게 작은 일탈을 선물했던 것이다. 그렇게 어머니는 신뢰를 쌓으셨고 평판도 좋으셔서 농장주들은 어머니의 작은 요청도 그나마 잘 들어주셨다.

나와 동생은 건강 상태는 나날이 안 좋아져 갔다. 특히 여동생은 단련대에 와서는 정신적으로는 그나마 회복이 되는 듯 싶었으나 하루 한 끼, 그것도 시커먼 고무 그릇에 옥수수 속을 갈아서 넣고 이름 모를 풀과 섞어 주는 음식은 식사가 아닌 소여물 같았기에 우리 둘은 도저히 씹을 수도 넘길 수도 없어서 늘 굶기가 일수였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어머니가 일터에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오시면 늘 무언가를 갖고 오셔서 사람들

이 깊이 잠이 들거나 혹은 사람들이 안 볼 때 나와 동생 입에 먹을 것들을 넣어주시곤 했다. 어느 날은 두부를 몰래 숨겨서 들어오는 날도 있었고 또 어떤 날은 불에 구운 옥수수도 몰래 품어서 갖고 오신 날도 있었다. 지금 생각해 보니 어머니가 비굴하게 자존심 같은 것은 버려둔 채 모진 모독과 비참한 가운데도 열심을 다 하셨던 것은 나와 동생을 살리고자 했던 어머니의 헌신이었다.

그러니 낮에는 비록 어머니가 안 계시지만 저녁에 돌아오는 어머니가 무언가를 갖고 오진 않을까 하는 기대 속에 하루를 보내는 것이 일과가 되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이 깊었던 것은 명절에도 먹기 힘든 귀하다귀한 삶은 계란을 먹었던 사건이었다. 그날도 배고픔에 배꼽을 잡고 겨우 잠자리에 들었는데 어머니가 자고 있는 나와 여동생 입에 무언가를 쑤셔 넣으시는 것이었다. 잠결에 놀라기도 잠깐 너무나 달콤하고 말랑하여 목이 콕 메는 삶은 계란에 너무나 반가워서 숨도 안 쉬고 먹었던 거 같았다. 어머니는 소리 내지 말고 꼭꼭 씹어 먹으라고 하셨다. 일터에서 웬일로 나눠준 삶은 계란을 몰래 숨겨서 오셔서, 다들 잘 때를 기다려 조심스럽게 계란 껍질을 까서 우리 입에 넣어주셨던 것이다. 당신이 받는 식사도 혼자 먹기에도 부족한 양의 음식이었을 텐데... 부실한 감옥 식사를 생각하면 그 계란 한 쪽이 어머니께도 얼마나 귀하셨을까... 또 외부에서 단련대로 복귀하면 몸수색을 하는데 그것을 몰래 들여온다고 얼마나 신경을 곤두세우셨을까... 퍽퍽한 노른자가 목에 걸리지 않게 꼭꼭 씹으라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으며 꿀꺽

삼켰던 그 계란은, 쇠약해진 우리 생명을 연장시키는 어머니의 사랑이요 희생이었다.

고난은 부족한 음식과 배고픔뿐만이 아니었다. 우리는 한여름에 잡혀왔기 때문에 여름옷을 입은 채로 복송이 되었다. 북한에서는 별도의 죄수복을 지급하지 않았고, 심문 과정을 거쳐 단련대로 옮겨질 때에도 복송 당시의 여름 복장 그대로였다. 북한의 가을 날씨는 아침저녁으로 정말 추웠다. 열악하기 그지없는 북한의 단련대 수용소는 정말 추웠다. 시간이 더 지나가면 갈수록 반바지와 반팔 티만 입고 있던 나와 동생은 얼어죽게 생겼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이모 분이 보위부를 거치지 않은 채 몇 차례의 조사만 거친 후 단련대로 들어왔다. 그 이모는 중국에 친척들이 있어 몇 년 동안 몰래 그곳에 나가 도움을 받곤 했었다고 한다. 그날도 중국 도문으로 넘어가 친척들에게 도움을 받고, 온성으로 돌아와 늘 묵던 브로커 집에 있었는데 누군가의 신고로 이곳까지 오게 되었다. 처음 단련대에 도착한 이모의 모습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망연자실한 얼굴로 뒤편에 홀로 앉아 서럽게 눈물을 흘리던 이모의 모습을 잊을 수 없다. 사람들은 이모가 유난이라며 혼자 불쌍한 척한다며 눈총을 주었지만, 우리 어머니는 이모를 위로해 주시며 강인하게 살아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고 이끌어 주셨고, 그 덕분에 이모는 다시 용기를 낼 수 있었다. 그 후로 우리 가족과 이모는 서로 의지하며 그곳에서 힘이 되어 주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오들오들 떨고 있는 우리 가족을 본 이모는, 자신이 갖고 온 보따리 속에 옷이 많다며 몰래 숨겨온 돈으로 간부

를 매수해 옷 보따리를 찾아내셨다. 그리하여 우리 세 모녀는 이모 덕분에 따뜻한 옷을 받아 입게 되었다. 우리는 꼭 이모에게 은혜를 갚겠다고 말했지만, 이모는 나중에 보따리를 찾아 고향에 가더라도 도중에 누군가에게 다 뺏겼을 것이라며, 우리에게 주는 것이 더 좋다 하시고 뿌듯해 하셨다. 이모가 준 옷 덕분에 우리는 얼어 죽지 않고 나중에 중국으로 다시 넘어올 때까지 버틸 수 있었다. 이후에도 이모는 보따리에 있던 생필품 등을 빼내어 단련대 안에서 물물교환을 하면서 우리 가족도 함께 챙겨주셨다. 지금 생각하면, 그 험난한 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나씩 보내주신 도움의 손길이라고 생각한다. 단련대에서 약 한 달 이상을 머문 우리는 다시 청진에 있는 함경남도 도 집결소로 옮겨지게 되었다. 우리는 단련대에서 노동을 하다가 노동 교화 시간이 다 되면 풀려나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2002년에는 중국에서 끊임없이 탈북자들을 색출하여 북한으로 내보내던 시기였기에 북송된 사람들이 넘쳐났다. 이들은 보위부 조사와 단련대를 거쳐 각 주 소시에 따라 도 집결소로 호송되었다. 우리의 고향은 함경남도이기에 도 집결소인 함경남도 청진시로 향했다. 그곳에서 다시 각 시나 도로 옮겨져야 하는데, 우리를 데리러 담당 간부가 와야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구조였다. 새벽부터 기차의 몇 개의 칸에 탈북자 죄수들, 그리고 무장한 군인들과 안전원들이 탔다. 훌쩍 다가온 초겨울 북한의 날씨는 매우 추웠다. 새벽부터 우리는 고개도 들지 못하고 기차에 몸을 실어야 했다. 청진 도 집결소에서는 노동을 하며 고향 지역의

담당 간부가 자신들을 데리러 오기를 기다린다. 하지만 당시 각 지역 간부들은 죄수들을 데리러 제때 오지 않고 오래도록 방치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이처럼 죄수를 방치하는 이유는 출장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간부 개인이 부담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래도 죄수 중에서 자신에게 이득이 될 만한 사람이 있다면 조금 더 일찍 그 죄수를 데리러 왔다. 우리 세모녀 역시 언제 올지 모르는 고향 지역 간부를 기다리며 집결소에서 생활을 보냈다.

이곳 도 집결소에서 도착해서는 엄마와 함께 지낼 수 없었다. 집결소 규모가 작아서 많은 인원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고, 모두 한 곳에 있다가는 모두가 극심한 영양실조로 다 죽을게 뻔해 보였다. 앞으로 더 수용할 장소도 지어야 하고 노동도 해야 했기에, 건강한 사람과 아픈 사람들을 분리해서 수용했다. 건강한 성인들은 산속에서 숙식하며 노동을 했고, 집결소에는 노인들, 아픈 사람들, 그리고 아이들과 장기수들이 남아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나와 동생도 예외 없이 엄마와 떨어져야만 했다.

도 집결소 남은 사람들은 주로 노약자들과 미성년자들이었는데, 새벽 4시면 기상해야 했고, 운동장 한 바퀴를 구호를 외치며 뱅뱅이를 돌고, 아침에 간단한 정신교육 후에 집결소가 위성 사진에 찍히지 않도록 마당에 유리구슬 같은 것을 뿌리고 거두는 일에 동원됐다. 그리고 낮에는 논밭에 나가 벼를 추수하는 일, 벼짚을 나르는 일, 돌맹이 나르는 일 등 노동단련대와와는 또 다른 강도 높은 일들을 해야 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엄청난 양의 조항들과 다시는 도강하지 않겠다는



선서문을 또박또박 외워야 했고, 매일 밤마다 감옥 안에 인원들이 돌아가면서 불침번을 서야만 했다. 만약 불침번 근무 중에 졸거나 불성실한 태도가 발각되면 심한 벌을 받아야 했다. 나는 몸이 약하고 아픈 여동생을 대신해 매일 2시간 씩 불침번을 더 섰다. 깊은 자정이 되면 손바닥 만한 창문 사이로 보이는 달님이나 별들이 나의 친구가 되었다. 반짝이는 별이 빛나는 밤이면 그것들을 반복해서 세어보기도 했다. 그리고 이곳을 빠져나갈 수만 있다면, 혹은 내가 만약 저 별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으로 멍하니 보다 보면 날이 밝아오곤 했다. 배고픔과 추위, 그리고 누릴 수 없는 자유, 보고 싶은 엄마...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사방이 캄캄한 암흑 속에서 아픔 없이 이 자리에서 죽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수도 없이 했었다.

어머니는 도 집결소에서도 여성책임자를 맡으셨다. 감옥에 피 같은 애들을 두고 온 어머니는 절대 혼자 도망갈 수 있는 분이 아니셨다. 그나마 1~2주에 한 번 간부들의 농작물이나 필수품을 가지러 집결소에 내려올 때, 어머니도 간부들과 함께 일꾼으로 파견되어 내려오곤 하셨다. 어머니는 아이들을 만나게 하지 않으면 죽겠다는 마음으로 진심을 보였고, 성실히 일 했고, 아픈 두 딸이 항상 엄마가 보고 싶어 울고 있는 것을 감옥에서도 모르는 바가 아니었다. 그래서 어머니는 언제 집결소에 갈지 모르니 배급된 음식의 절반을 안 먹고 따로 싸 놓으시곤 하셨다.

그렇게 컴컴한 밤 우리 모녀는 잠시 생사를 확인하고 다시 헤어져야 했다. 10분도 안 되는 짧은 순간에 어머니는 자신이 배급받았던 음식을

아껴서 가져와 우리 옷 속에 넣어주셨다. 그리고는 꼭 정신 차려서 살아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동생을 잘 보살피라고 나에게 당부하시곤 하셨다. 우리는 울면서 엄마와 헤어져야 했고, 훌쩍이며 화장실에 들어가 어머니가 주신 옥수수 한번 베어 물고 또 울었다. 안타깝게도 어머니께서 주신 음식은 대부분 쉬어져 있었지만, 그마저도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음식이었다. 다 쉬어버린 옥수수를 먹으며 나는 눈물을 뚝뚝 흘렸다. 우리를 위해 먹지 않고 아껴서 건네주신 어머니의 사랑과 그런 사랑에도 불구하고 야속하게 쉬어버린 옥수수, 그리고 그것마저 먹지 못해 배를 굶고 있는 감옥 안에 사람들... 만감이 교차하는 비참하고 슬픈 현실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독하게 그 옥수수를 먹는 것이었다. 그리고 동생에게 억지로든 그 음식을 다 먹이는 것이 나의 책임이었다. 그렇게 나날이 살아 있는 지옥을 경험하던 어느 날 우리 거주 지역에서 간부가 오셨다는 것이다. 우리 모녀를 데리러 온 담당자는 은퇴를 앞두신 할아버지 보위지도원 동지였다. 이분도 원래는 우리를 데리러 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평양으로 출장을 갔다 돌아오는 길에 기차가 연착이 되어 딱 우리가 있는 청진에 멈춰 섰다고 한다. 북한에서 기차는 한번 멈추면 언제 다시 출발할지 모르기 때문에, 집결소에 있다는 모녀들을 확인만 하고 데리고 가는 것은 나중에 결정하고자 생각하시고 이곳을 방문하셨다고 나중에 말씀하셨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 간부는 감사하게도 우리의 이야기나 사정이 하도 안타까우셨는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데리고 가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했다. 비록 넉넉한 차비도 없이 온 길이지만 마음을 돌이켜 우리 세모녀가 다 여기 있는지 물으셨다. 그런데 늘 저녁에나 물건을 부리고 신고 가던 일정이 그날은 점심시간이 안 되어서 어머니도 함께 내려오셨다. 기적 같은 일이다. 평소에는 한 번도 낮에 내려오신 적이 없었는데 말이다. 이렇게 집결소에 세모녀가 다 모여 있었던 덕분에, 타이밍이 너무나 알맞게 우리 세모녀는 얼떨결에 할아버지 간부를 따라 너무나 순조롭게 드디어 집결소 커다란 철문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이제 고향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에 너무나 들떴고 간만에 만난 엄마도 너무 반가웠다. 여동생도 그날따라 기운을 차리고 희망이 가득찬 눈망울을 하고 있었다. 우리 세 모녀는 할아버지 간부가 있는데도 아랑곳 하지 않고 신이 나서 웃음이 절로 나왔고, 우리끼리 속닥속닥 했다. 그러자 보위지도원 할아버지는 말하지 말고 일렬로 걸으라고 혼을 내셨다. 순간 얼어붙었지만 당당하지 못한 우리의 신분엔 그저 아무 말 못하고 앞만 보고 따라갔다. 그 간부는 엄마의 손목을 채우기 위한 녹슨 수갑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이들을 봐서 지금 채우지 않고 시에 도착하면 수갑을 채우겠다고 배려해주었다. 중국에서부터 머리를 길러 긴 머리를 하고 있었던 나와 동생의 모습이 북한의 보통 여자아이들이 하는 단발머리와 달리 우리는 등장만으로도 모든 이목에 뛰었고 인솔간부 입장에서는 수갑까지 채워서 더 이목을 집중시키고 싶지 않았던 듯 싶다. 덕분에 어머니는 수갑을 차지 않고 열차를 탈 수 있었다.

언제나처럼 북한열차는 계속해서 연착이 되었다. 여행이 길어지자 간부가 휴대한 여비도 부족해졌다. 다행히 이 간부는 우리에게 나쁘지 않게 대해주고 부족한 여비에도 우리를 굶기거나 하지 않았지만,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다 열차가 단전에 멈추게 되었다. 단전에는 나의 큰아버지, 즉 어머니의 오빠가 살고 있었다. 탈북을 하기 전, 어머니는 큰아버지가 외할머니를 모시고 있다는 것을 들어 알고 있었다. 마침 단전에서 열차가 연착이 되자 어머니는 외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으셔서 인솔 간부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큰오빠네 집에 가면 잘 곳도 있을 것이고 먹을 것도 있을 것이니 하룻밤 쉬어 가자는 제안이었다. 마침 여비도 부족한 터라 인솔 간부는 못 이기는 척 어머니를 따라 큰아버지 집으로 방문했다. 마침 큰아버지는 출장 가셨는지 집에 계시지 않았고 사촌오빠도 군대에 가 있어 집에는 큰어머니와 사촌언니만 있었다. 큰어머니는 우리들을 보자 반가워하기는커녕 어떻게 우리 가문에 도강자가 나올 수 있냐며 너무나도 수치스러워 하고 모진 말들을 뱉어댔다. 어머니는 오직 외할머니의 생사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너무 궁금해하셨다. 그래서 큰어머니께 예의를 갖춰 외할머니의 생전 이야기를 듣기 위해 참고 견뎌내셨다. 외할머니께서는 이미 몇 년 전 돌아가셨고 큰어머니는 할머니의 살아생전이 본인에게는 너무 힘든 일이었다며 오히려 분을 내셨다. 그리고 보고 싶은 외할머니를 볼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찾아간 우리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다.

충격을 받으신 어머니는 외할머니가 어쩌다 돌



아가셨는지 계속 물었다. 큰어머니는 아무렇지도 않게 “어떻게 죽긴 어떻게 죽어. 노망났으면 곱게 날 것이지. 벽에 뚫치고 맨날 밖에 나가 길래 묶어뒀지.”라고 태연하게 말했다. 어머니는 “그럼 당신이 우리 엄마를 묶어두고 밥 안줘서 굶어 죽었다는 거야?”라고 추궁하셨고, 그 말에 큰어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너무 기가 차서 말문이 막혔다. 자신에게 도강자라고 타박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외할머니의 죽음은 어머니를 분노와 충격으로 뒤덮었다. 못난 딸 때문에 어머니께서 그런 처우를 받고 돌아가셨다며, 내가 잘 돼서 어머니를 모셨어야 했는데 하며 죄책감을 가지셨다. 지금도 어머니는 외할머니께서 살아 계시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구출해 왔을 것이라며 후회와 자

책으로 사신다. 큰어머니는 그 외에도 한 끼 밥과 하룻밤의 잠자리를 제공하는 일에도 심하게 꺼려하며 눈치를 주었고, 우리는 다음날 일어나 자마자 일찍 그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

우울한 마음으로 우리 모녀는 고향으로 돌아왔다. 이제부터는 지역 안전부(경찰)의 조사가 이어진다. 원래라면 안전부 수감시설에 갇혀서 조사를 받아야 했지만, 당시에 고향에서는 우리 모녀가 첫 송환자였기 때문에, 지역 안전부에서는 도강자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장군님의 은혜로 조국에 돌아와서 더 잘 살고 행복해 한다고 우리를 이용해 선전을 하려는 생각이 있었다. 그들은 우리가 중국에서 배반당했으니 여기서 잘 살아보지 않겠냐고 했다. 그들의 의도를 눈치 챈 어머니는 다신 중국에 가지 않겠다고 그들 앞에서

다짐을 했다. 덕분에 우리는 감옥에 가지 않고 집에서 왕래하며 안전부로 조사를 받으러 갈 수 있도록 배려를 받았다. 하지만 우리는 집이 없었다. 벌써 도강을 한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우리 집이 남아 있을 리 없었다. 안전부 사람들이 어디 지낼 곳이 있느냐고 어머니께 물었을 때, 어머니는 과거 우리와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냈던 인민반장네 집으로 가겠다고 했다. 안전부 사람들도 아무래도 인민반장의 집이라면 감시와 통제가 용이하겠단 생각했는지 우리를 인민반장네로 보내주었다. 우리를 본 인민반장은 너무 놀라 했다. 조용히 이사를 간 줄로 알고 있던 우리가 외국인이 다 돼서 나타났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이것저것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으며 귀한 이팔에 계란후라이도 주고 그랬다. 그렇지만 딱 3일이 지나니 우리를 대하는 얼굴 표정이 싹 바뀌는 것이 느껴졌다. 언제까지 우리 집에서 신세질 것이냐는 무언의 압박이었다.

사실 어머니는 처음부터 재탈북을 생각하고 계셨다. 아무리 호의를 베풀어 준다고 해도 북조선은 북조선이다. 어머니는 인민반장네서 계속 지내게 되면 탈북을 할 수 없을 것이라 판단하고 계셨다. 인민반장의 불편한 심기를 확인하신 어머니는 이때다 싶어서 인민반장에게 우리가 살 곳을 다른 이웃집으로 옮기겠다고, 그곳에 인민반장이 왔다 갔다 하며 우리가 잘 있는 지를 확인하면 되지 않겠냐며 제안하셨다. 그 얘기를 들은 인민반장은 환한 얼굴로 갈 곳이 있냐며, 너무 좋은 생각이라고 동의했다.

우리 가족은 껍다리 이모네로 거처를 옮기기로 했다. 마르고 키가 커서 우리가 껍다리 이모라고

불렀던 그 이모는, 과거 고난의 행군 때 우리 어머니의 도움을 많이 받았었다. 당시 성실하기로 유명했던 껍다리 이모는 당원으로서 누구보다 국가와 당에 충성하던 분이셨다. 그러나 고난의 행군 기간 동안 껍다리 이모의 가정은 큰 풍파를 겪었다. 이모의 남편은 굶주림과 병으로 인해 많이 아프셨고, 이모는 오랫동안 남편의 병수발을 들었다. 하지만 국가에서는 배급도 주지 않고 아픈 남편도 진료를 받거나 약을 구하지 못했고, 결국 이모의 남편은 숨을 거두고 말았다. 이모가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어머니께서 식량이나 의복을 건네주고 격려하며 도움을 주셨었다.

껍다리 이모가 홀몸이라는 것을 기억한 어머니는 껍다리 이모네 집으로 거처를 옮기기로 하셨다. 우리를 본 이모는 그 동안 어디 있었냐며 여느 사람들처럼 너무나 놀라셨다. 그리고 우리를 기쁘게 반겨주셨다. 이모의 모습은 많이 바뀌어 있었다. 과거 당이 죽으라면 껌뻑 죽을 것만 같았던 충성분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졌다. 또 어머니께서 걱정을 할 정도로 순박하신 분이었는데 지금은 돈 버는 일에 혈안이 된 사람으로 변해있었다. 듣고 보니 남편 뿐 아니라 군대에 있었던 이모의 아들도 영양실조에 걸려 집에 돌아왔고, 한 달이 못되어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그 후로 껍다리 이모는 국가와 당에 철저하게 배신당했다고 느끼며 스스로 살길을 찾아야겠다는 굳은 결의를 쫓아 살아오셨던 것이다.

이모의 집은 다 쓰러져가는 허름한 곳이었지만, 식사만큼은 누구보다 잘 하고 계셨다. 집안 부엌에 가보니 발 디딜 틈도 없이 나무가 쌓여있었다. 나무 장사를 하고 있었던 이모가 누가 훔쳐




갈 새라 판매할 나무를 부엌에 쌓아두고 열쇠로 잠가두고 다니신다고 했다. 장사라는 것은 자본주의를 뜻한다. 한마디로 공산주의의 신념에 반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자기의 살길을 스스로 찾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 북한의 모순된 실상이었다.

꼭다리 이모 댁은 맘이 편했다. 혼자 살고 계셨기에 우리가 있는 것이 적절한 삶에 오히려 힘이 되었던 듯 싶다. 이모는 중국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 보시며 호기심을 가지기도 했다. 우리의 자초지종을 다 들으신 이모는 우리 손을 꼭 맞잡고 너희만은 이 나라를 떠나서 살아남으라고,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한편, 인민반장은 이사 후 처음 얼마간은 우리가 잘 있는지 점검하러 종종 찾아왔지만, 그 횟수가 점점 줄어들었고 나중에는 신경쓰지 않게 되었다. 어머니는 주기적으로 안전부로 출석하며 성실하게 조사를 받으려 다녔다. 하지만 어머니는 조사에서는 다시 국가에 충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면서도, 뒤로는 다시 탈북을 준비하셨다. 그리고 마침내,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이용해 우리는 다시 중국으로 가기 위해 또다시 고향을 떠나기로 마음먹었다.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은 쉬지도 않으시고 모든 곳에서, 특히 북한에서도 계속 역사하고 계셨다.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 북한에 있는 그의 백성들을 기억하고 사랑하신다. 그래서 나는 분명히 말할 수 있다. 그 당시에는 죽을 것만 같았던 과정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곳곳에 사람들을 보내시고 일하

고 계신다는 것을... 비록 이 짧은 글에 그 모든 사건들과 이야기를 다 담을 수는 없지만, 우리 가족은 분명히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체험들을 했고, 그것이 앞으로의 삶의 원동력이 되었다.

지금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수감한 탈북자 2000여명을 곧 강제 복송한다고 한다. 글을 쓰는 내내 우리가 이송되어 북한으로 나갔던 때가 떠올라 수감된 그들에게 감정 이입이 된다. ‘중국 정부가 그들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수도 없이 한다. 하지만 이는 우리의 생각일 뿐,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다. 만약 우리도 탈북 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중국에서 구출이 되었다면, 우리는 북한에서 일어난 일들을 경험하지도 못했을 뿐 더러 감히 이야기 할 수도 없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그래서 그 뜻대로 기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일 하시고 천사들이 일사분란하게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길 기도할 뿐이다. (계속) 

## 북한 정찰위성 발사 엔진 고장으로 실패



〈인양된 북한 우주발사체 잔해〉

북한이 5월 31일 군사정찰위성을 탑재한 우주발사체를 쏘아올렸지만 엔진 고장으로 실패했다. 북한이 추가 발사 시도를 예고한 가운데 한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규탄했다.


북한은 5월 31일 오전 6시 29분께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으로 우주발사체를 발사했다. 해당 발사체는 백령도 서쪽 먼바다 상공을 통과한 뒤 어청도 서방 200여km 해상에 낙하했다. 북한은 발사 한 지 2시간 30여분 만에 정찰위성 발사가 실패했음을 공식 인정했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대외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 위성운반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발사했다”면서 “‘천리마-1’형은 정상비행하던 중 1계단 분리 후 2계단 발동기 즉 엔진의 시동 비정상으로 추진력을 상실하면서 서해에 추락했다”고 발표했다.

국가우주개발국 대변인은 “결함을 조사 해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과학기술적 대책을 시급히 강구하며 여러 가지 부분시험들을 거쳐 가급적으로 빠른 기간 내에 제2차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군과 정보 당국은 북한 우주발사체가 발사 초기 추락한 데 대해 신형 우주발사체의 기술적 결함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다. 북한 측 보도에 따르면 우주발사체 1단은 정상분리됐지만 2단 로켓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신형 엔진체계의 불완전성과 연료특성의 불안정성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북한이 위성을 탑재한 발사체를 쏜 것은 1998년 8월 광명성 1호 위성을 시작으로 이번이 6번째이다. 북한이 위성 발사 실패 소식을 즉각 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실패 원인까지 제시한 것은 이례적이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수 차례 위성 발사를 대내외에 예고하였고 추가 발사 등을 통해서 반드시 위성을 올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실패를 공개하는 것이 부담이 덜 하다는 정치적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해당 우주 발사체는 서해에 추락한 지 15일 만인 6월 16일에 그 일부가 인양됐다. 인양된 물체는 추후 국방과학연구소 등 전문기관에서 정밀 분석할 예정이며 추가 잔해물 탐색 작전도 지속될 예정이다. (참고: 언론 보도 종합) 

# 노동당 제8기 8차 전원회의 6월 16~18일 개최...김정은 참석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지난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중앙위 본부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서 북한은 상반기 주요 성과로 기존에 강조한 관개건설 목표 달성, 살림집 건설과 함께 유제품 공급(제8기3차 전원회의 안건)을 부각했다. 군사·대외 분야에서는 정세 악화 원인을 한미에 돌리며 자위력 강화를 주장하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고, 압도적·공세적인 '행동 대 행동' 원칙을 강조하였다.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를 '가장 엄중한 결함'이라고 지칭하며 그 책임을 책임진 일군(간부)들의 무책임성으로 돌렸다. 우주산업을 위한 기구 편제를 최고인민회의에 상정할 것을 예고하기도 했다.

북한은 외교적으로는 앞으로 중국, 러시아를 비롯해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는 국가들과 외교에 더욱 힘을 싣겠다는 분명한 뜻도 밝혔다. 그밖에 화학·금속공업, 관개건설, 건설부문 등 이른

바 인민경제발전 12개 중요고지 점령을 위한 투쟁에서 성과가 달성됐고, 성과 소개가 있었다고 북한의 관영 언론들은 보도했다. 그 외에 오수용 당 경제비서·경제부장이 정치국 위원에 재진입했고 김영철 전 노동당 대남비서가 통일전선부 고문 직책으로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복귀하는 등 일부 인사가 이루어졌다.

통일부는 이번 전원회의 결과보고에 김정은 연설이 부재하고 난관의 원인을 외부·하부단위에 미루는 것으로 보아 '5개년 계획' 이행이 부진하며 만회에 대한 자신감도 감소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총평했다. 또한 "북한이 연초의 불안정성이 극복되고 성장률이 높아졌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성과 없이 '결점 폐단', '규율 미확립' 등을 언급, 계획이 달성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고 해석했다. 대외적으로는 북한이 하반기에도 핵무력 증강 노선과 각종 계기에 도발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참고: 언론보도 종합) 🐟

## “중국에 구금된 탈북자 600~2000명”... 북한 인권단체 “강제 송환 우려”



〈중국 길림성 허룽시(화룡시) 변방대의 19년 9월과 2022년 10월 위성사진. 새로운 건물과 시설 확대 정황이 확인된다. (출처=NK News)〉

북한 인권단체가 중국에 수감된 북한이탈주민(탈북자)이 600~2,000명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국경 봉쇄 정책을 해제할 경우 탈북자들이 강제 북송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송한나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국제협력디렉터는 6월 13일(현지시간) 미국 의회 초당파 기구인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가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개최한 청문회에 출석해 “(중국 수감시설에 구금된 탈북자) 추정치는 600명에서 2,000명”이라고 밝혔다.

송 디렉터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이에 따른 중국·북한 국경 폐쇄로 북한으로 송환을 기다리는 탈북자들이 지속적으로 구금되는 사례가 급증하

고 있다”며 “(북중) 국경이 개방되고 강제 북송이 재개되면 탈북자들은 북한으로 복귀하자마자 가혹한 인권 침해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공안이 탈북자 북한 강제 송환을 위해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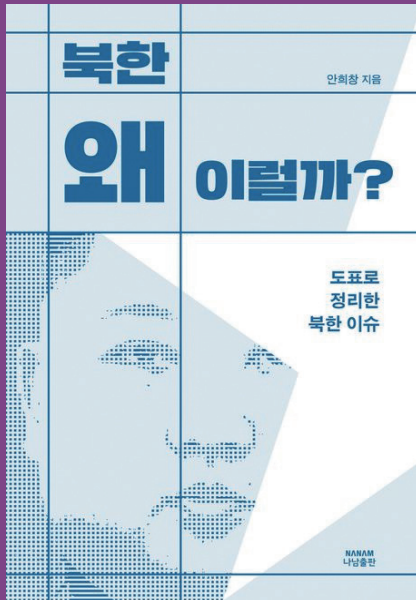
송 디렉터는 중국 공안에 체포된 북한 주민이 북중 국경 근처 공안변방부대에 구금된 뒤 송환된 다며 6개 구금 시설 분석 결과도 내놓았다. 북한 인권정보센터가 공개한 북한 무산군에 인접한 중국 허룽시(화룡시) 탈북자 구금 시설의 2019년과 2022년 촬영 위성 이미지에 따르면, 2019년만 해도 허전했던 시설이 3년 사이에 새 건물이 들어서는 등 시설 확대의 정황이 확인된다. 북한 인권정보센터는 탈북자를 가둘 중국 공안 시설이 확대된 증거라고 분석했다.

또 “생존자들은 구타, 전기 충격, 성폭행 등 (북한에) 송환됐을 때 당한 고문을 상세히 언급하고 있다”며 “만약 대규모 송환이 이뤄지면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 외에도 인공지능(AI) 기술과 이를 적용한 중국의 대규모 감시체계가 탈북민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고: 한국일보 6월 14일 외 언론 보도 종합) 



## 북한 이해를 위해 더 읽을만한 책



제목: 북한 왜 이럴까 -  
도표로 정리한 북한 이슈  
저자: 안희창  
출판사: 나남출판사  
발행일: 2023년 03월 08일  
가격: 22,000원

분단의 역사가 벌써 70년이 넘어간다. 그 시간 동안 북한의 정책이나 남북관계의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났다. 현재의 북한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이 누적된 결과일 것이다. 북한은 우리에게 익숙한 일반적인 국가 시스템과 상당히 다른 공산주의 국가로서, 자기만의 특징을 가지고 변화해왔다. 그러다보니 이를 언뜻 보았을 때에는 복잡하다는 느낌을 받곤 한다. 북한의 이해를 돕는 많은 서적들이 시중에 나와 있다. 보통은 북한의 체제 이슈, 사상 이슈, 경제 이슈, 리더십 이슈 등등에 대해 분야별로 세부 사항까지 자세히 설명하거나, 요즘 북한 사회 전반에 대해 설명하는 책들이 자주 보이는 것 같다. 그 중에서도 오늘 소개할 책, “북한, 왜 이럴까”는 북한 체제론, 또는 북한


정치사에 대해 요점 위주로 정리한 책이다. 남북외교사와 북한의 대남정책, 기업소를 중심으로 한 경제제도, 조선노동당과 국가기구 간의 관계, 핵개발과 군사 중시 노선 등 북한을 둘러싼 7가지 주요 이슈 각각을 하나의 장으로 하고, 그 안에 10여개 이상의 세부 주제들을 다루는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요점 위주로 정리했다고 하지만 책의 내용이 가볍거나 단순하지 않다. 그보다는 복잡하지 않게 설명했다고 할 수 있다. 남북관계와 북한의 사상과 체제 전반을 다루는 상당히 방대한 분량이다.

처음 이 책의 제목을 보았을 때는 북한의 행보를 설명하고 예측하는 분석이나 통찰을 담은, 그런 느낌의 책이 아닐까 생각했다. 그렇

지만 책을 읽고 보니 그보다는 북한의 체제 전반에 대한 이해를 통해 북한이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있다는 취지의 제목으로 생각이 되었다. 학교에 북한 관련 수업이 있다면 기본 교과서 중 하나로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의 책이었다. 출판사의 책 소개에 따르면, 이 책은 특별히 사적인 견해나 논평은 철저히 배제하고 사실관계를 건조하면서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연표’로서 제작했다고 한다. 그런 만큼 이 책에서는 각 세부 주제마다 그 주제를 요약적으로 보여주는 간단한 도표가 들어가 있다. 어떤 책의 경우, 내용 이해를 도와야 할 도표가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 책은 가급적 간단한 형식으로 도표를 만들려는 노력이 느껴졌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 책의 강점은 북한의 당과 군, 국가 기구에 대해서 잘 정리해주고 있다는 점이었다. 아무래도 북한이라는 국가 시스템이 워낙 독특하다보니 일반인들에게는 낯설고 어렵다는 인상을 주는데, 자료를 찾아보아도 머리에 잘 그려지지 않는 복잡한 설명과 도표들이 많아서 이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 책은 자칫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상당히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책의 제목과 같이 북한이 왜 이렇게 움직이고 저러한 행보를 보이는지 조금이나마 이해해보려고 많은 분들이 북한에 대해 공부하고 있으리라 생각이 든다. 오늘 소개할 책이 북한 공부를 본격적으로 해보고자 하는 분들께 일종의 개론서로서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

다. 평소 역사의 흐름이나 이벤트를 따라 남북 관계가 북한 정치를 정리해서 보기 원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책 “북한 왜 이럴까”를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 1** 북한 선교 현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진정되고 그 동안 막혀있었던 사역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북한도 국경 봉쇄를 완화하고 있고, 정식으로 국경을 여는 일도 머지않아 보입니다. 앞으로 북한 사람들과의 접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선교 현장의 준비가 필요하지만, 경험있는 선교사님들 상당수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현장을 떠날 수 밖에 없었고 이를 다시금 회복하는 데에 여전히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안전 속에서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북한 선교를 위해 성령 충만하고 준비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2** 탈북민 복음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남한에 입국한 탈북민 숫자가 22년도 통일부 통계 기준 3만 4천여명에 다르고 있습니다. 탈북민 중 상당수가 탈북 과정에서 접한 선교사나 현장 사역자의 수고와 섬김을 통해 믿음을 가지고, 또는 기독교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지고 남한으로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입국 이후 신앙을 지키며 교회생활을 하는 탈북민 숫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탈북민 복음화에 한국 교회가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그리고 일선에서 애쓰고 계신 탈북민 교회와 사역자 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 3**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시험 발사했으나 실패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6월 15일에는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하는 등 관련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위성발사도 머지 않은 시기에 재발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 초부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황이 계속해서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확대되지 않도록, 그리고 각국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평화를 존중하며 이를 증진하는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4** 북한의 기독교 박해 중단과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올 4월 평안남도 순천시 동암리에서 지하교회 예배 모임이 적발되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주일 새벽마다 소수의 사람이 모임을 가진다는 것을 알고 심어놓은 정보원에 의해 예배 모임이 습격을 당했다고 합니다. 북한의 기독교 박해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최근 공개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전문에 따르면 '미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종교 서적, 영상물, 사진, 그림 등을 보거나 소지한 경우 최소 5년에서 10년 이상까지, 유입과 배포의 경우 최소 무기징역에서 사형에 처하는 매우 극심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교 단속을 위한 주민 교양 교육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의 기독교 박해가 하루 속히 중단되고 지하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특별히 갇혀있는 성도들의 고통을 생각하며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그들과 함께하시도록, 그리고 한국 교회가 희생당하는 복녜의 성도들을 잊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 5** 강제 복송의 위기에 처한 제 3국 탈북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가 풀리면서 그동안 미루어졌던 탈북자들의 강제송환이 재개될 것이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중국 내 탈북자 구금시설이 확장된 것이 위성 이미지를 통해 확인되고 있는데, 수백에서 최대 2천여명의 북한 사람들이 확장된 수감시설에서 강제 송환 위기에 처해있다고 관련 기관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더욱 강화된 북한의 탈북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미루어 볼 때, 강제 복송될 탈북자들은 생명의 위협이 될 만한 심각한 어려움을 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선교사와 현지 기독교인들을 통해 복음을 전달받았고, 신앙을 가진 이들도 있습니다. 한인 선교사와의 접촉은 이들의 형량을 가중시킬 요인이 되는 만큼, 북한의 기독교 박해와 관련하여 우리의 특별한 관심과 기도가 요청됩니다. 탈북민 강제 송환이 하루 속히 중단되고 현재 갇혀있는 이들이 살 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6**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이들의 석방과 송환되는 해외 북한사람들의 안위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해외 노동자들이 팬데믹 상황이 진정됨에 따라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랜 해외 생활을 통해 외부 세계를 충분히 경험하였고, 특별히 선교사나 현지 기독교인과의 접촉을 통해 복음을 받아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신앙을 가지고 북한으로 돌아가는 이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비밀리에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김정욱(2013), 김국기(2014), 최춘길(2014) 선교사와 탈북민 출신 김원호(2016), 함진우(2016), 고현철(2016)씨, 그리고 조선족 사역자들은 여전히 북한에 억류되어 있습니다.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7** 북한의 경제난과 취약계층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의 어려운 식량사정으로 인해 년 초부터 아사자 발생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 5월 6일 서해를 통해 탈북한 일가족이 증언한 바에 따르면, 현재 “북한의 일부 마을에서 인육 취식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문이 나돌 정도로 식량난이 극심한 상태”라고 합니다. 경제난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북한의 취약계층을 위해서, 특별히 산간 오지에 추방당하였거나 나쁜 배경성분으로 더욱 어려운 처지에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그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을 돕기 위한 오픈도어선교회를 포함한 선교단체와 기독교 NGO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8** 북한의 청년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은 청년층을 겨냥하여 각종 사상문화통제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말투까지 규제하는 북한 당국의 행태는, 그렇지만 그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보다는 현상만을 억압하는 모습입니다. 북한의 청년들은 더 이상 사회주의적이지도, 그렇다고 자유롭지도 않은 상황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 방황하며 한류 문화 등을 매개체로 자신들의 공허함을 채우고 있다고 여러 탈북 청년들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사회의 지도층으로 부상할 새로운 세대를 통해 북한 사회 전반이 긍정적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억압받는 이들이 인생의 진정한 답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게 되도록, 그러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9** 북녘을 향한 라디오 복음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픈도어선교회는 생명의 강 방송, 극동방송, 북방선교방송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성도들을 격려하고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봉쇄기간동안 라디오 방송 사역은 막힌 국경을 넘어 북녘으로 복음을 전파해왔고, 그러다보니 이를 막고자 하는 북한의 전파방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방송 사역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북녘의 청취자들이 안전하게 방송을 들으실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기상 악화나 북한의 방해전파 등으로 인한 음질 저하 및 청취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북녘의 주민과 성도들이 강화되고 있는 비사회주의·반사회주의 단속 열풍을 잘 피해서 안전하게 방송을 들으실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서울시 동작 우체국 사서함 56호 우편번호 07056

\* TEL 02-596-3171

\* Home Page : [www.opendoors.or.kr](http://www.opendoors.or.kr)

\* E-mail : [info@opendoors.or.kr](mailto:info@opendoors.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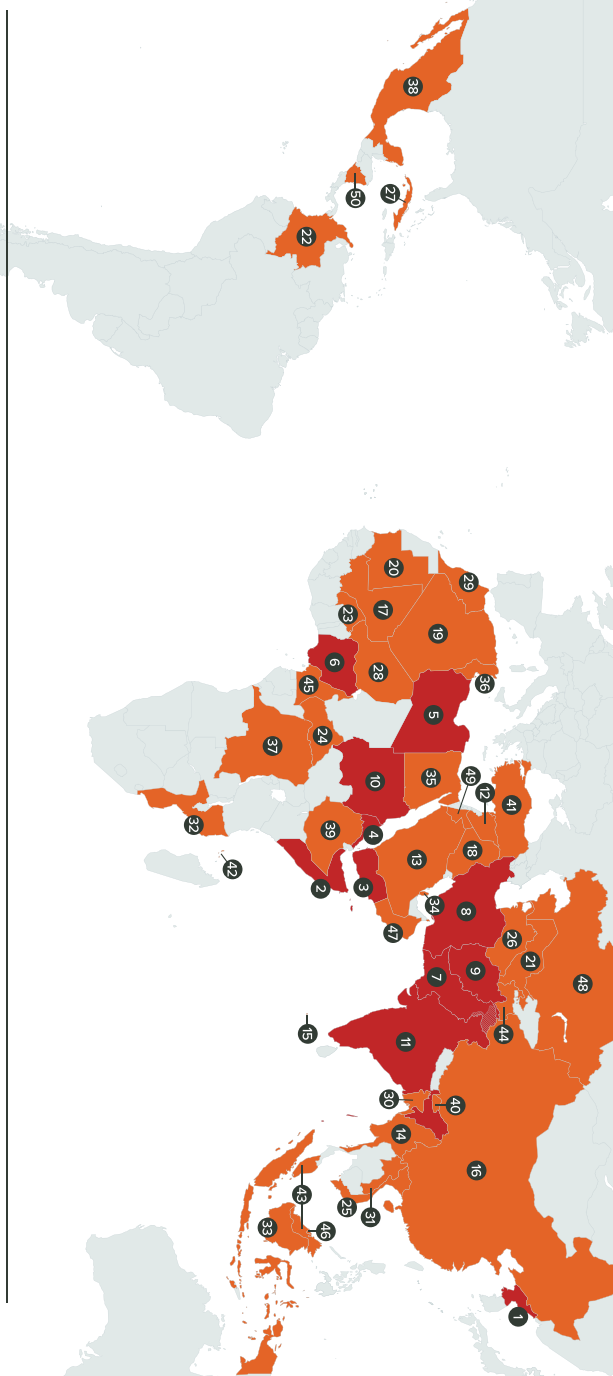
☐ 후원계좌 (북한선교)

국민은행 (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9301-04-169183



# WORLD WATCH LIST 2023

## 월드와치리스트 - 기독교 박해지도



### ABOUT THE LIST

#### 월드와치리스트에 관하여

월드와치리스트는 오픈도어 분석가들이 150개국의 전문가들로부터 취득한 실태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한 데이터입니다. 각 국가 별 박해지수는 폭력적 압박 정도를 분석한 하나의 포인트시스템을 통해서 기록됩니다. 이는 삶의 5가지 영역에서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사건의 수와 심각성 그리고 기독교인들의 실제 신앙생활에 가해지는 압박의 정도를 측정하여 수치화한 것입니다.

- 폭력
- 개입영역
- 가정영역
- 공동체영역
- 국가영역
- 교회영역

각 영역별 최고 지수는 16.7이며, 전 영역 지수의 총 합은 100점입니다. 각 국가의 순위는 박해의 심각성을 나타내 주는 100점 만점 기준 영역별 점수 총 합으로 결정됩니다.

### 박해수준

- 높음 41-60 points
  - 매우높음 61-80 points
  - 극심함 81-100 points
- 순위 내 모든 국가들은 매우높음이나 극심함 수준의 박해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독교인에 대한 높은 수준의 박해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순위	국가	총점
1	북한	98
2	소말리아	92
3	예멘	89
4	에리트레아	89
5	리비아	88
6	나이지리아	88
7	파키스탄	86
8	이란	86
9	아프가니스탄	84
10	수단	83
11	인도	82
12	시리아	80
13	사우디아라비아	80
14	미얀마	80
15	몰디브	77
16	중국	77
17	말리	76
18	이라크	76
19	알제리	73
20	모리타니	72
21	우즈베키스탄	71
22	콜롬비아	71
23	부르키나파소	71
24	중앙아프리카공화국	70
25	베트남	70
26	투르크메니스탄	70
27	쿠바	70
28	니제르	70
29	모로코	69
30	방글라데시	69
31	라오스	68
32	모잠비크	68
33	인도네시아	68
34	카타르	68
35	이집트	68
36	튀니지	67
37	홍콩민주행정국	67
38	멕시코	67
39	에티오피아	66
40	부탄	66
41	터키	66
42	코모로	66
43	말레이시아	66
44	타지키스탄	66
45	케메룬	65
46	브루나이	65
47	오만	65
48	카자흐스탄	65
49	요르단	65
50	니카라과	65